

<자료집>

광주환경운동연합 2015년 정기총회

- 일시 : 2015년 1월 27일(화) 18:30
- 장소 : 광주환경연합 5층 강당(북동신협 5층)

광주환경운동연합

| <http://gj.ekfem.or.kr/>

| 트위터 @gjkfem 페이스북 gjkfem

】

정기총회자료집 목차

04	정기총회 식순
05	2014년 활동일지
19	감사보고서
27	2014년 사업보고(안)
71	2014년 재정결산(안)
81	2014년 조직구성(안)
85	2015년 사업계획(안)
115	2015년 예산(안)

! 부록 !

125	성명서·논평 등
153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의 활동
169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177	회원 생활수칙



【 정기총회 식순 】

■ 식전행사

- 활동영상
- 회원모임 소개 및 인사

■ 1부 Ⅱ 총 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서기지정
-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 : 제1안 _ 감사보고 안
- : 제2안 _ 2014년 사업 및 결산 안
- : 제3안 _ 임원선임 안
- : 제4안 _ 2015년 사업 및 예산 안
- : 제5안 _ 기타 안건
- 폐회

■ 2부 Ⅱ 시상식 및 다과

- 녹색회원상 시상 및 감사패, 공로패 증정
- 다과

2014 활동일지

1월

1월 2일	사무식(5.18묘역)
1월 2일	밀양송전탑 반대 일인시위
1월 5일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총회
1월 7일	기후천사
1월 8일	2013년 사업 및 회계 감사
1월 9일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연석회의
1월 9일	밀양송전탑 반대 일인시위
1월 11일	일곡양산모임(담양습지 답사)
1월 13일	‘두물머리’ 상영회(4대강사업 투쟁 기록 다큐)
1월 15일	푸른광주21협의회 총회 참석
1월 16일	기후포럼회의
1월 16일	밀양송전탑 반대 일인시위
1월 20일	5.18광장 박석마당 대책회의
1월 2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1월 21일	정기총회
1월 22일	영화 ‘밀양전’ 상영회 및 문화제
1월 23일	밀양송전탑 반대 일인시위
1월 24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1월 24일~25일	어린이 겨울캠프,
1월 25일~26일	밀양희망버스

2월

2월 2일	민주가족 합동세배
2월 4일	탈핵 도보순례 출정식(영광)
2월 4일	회원모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례 모임
2월 5일	5.18민주광장 토론회
2월 5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모임
2월 6일	집행위원회 정례회의
2월 6일	송산천 하천 기본계획 심의 회의 참석
2월 11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례모임-하천과 습지의 새,
2월 11일	‘푸른길’ 총회
2월 13일	화상 경륜장 반대기자 회견

2월 13일	‘기후천사’ 정기모임
2월 14일	탈핵 도보순례 참여(순천)
2월 14일	세계 인권도시포럼 워크숍, 포럼 준비회의
2월 14일	푸른광주21협의회 실천사업 워크숍
2월 15~16일	물한방울흠한줌’ 회원모임 총회(제주도)
2월 17일	화쟁순례 준비회의
2월 18일	푸른광주21협의회 녹색교육 회의
2월 18일	탈핵행동회의
2월 18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2월 19일	수완 중 생태 프로젝트 준비
2월 20일	광주시민협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참여
2월 22일	‘일곡양산’ 회원 정기모임
2월 24일	푸른광주21협의회 기후대기 분과회의,
2월 24일	지구의 날 준비회의
2월 24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 성명서
2월 2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총회, 탈핵행동회의
2월 25일	공원화를 위한 부지 양여, 교환 환영 논평
2월 26일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 추진회의
2월 26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한중일 준비회의
2월 26일	지리산 케이블카 공개질의
2월 27일	6.4지방선거 대응 환경정책 워크숍
2월 28일	푸른광주21협의회 물하천분과 회의

3월

3월 4일	지구의 날 회의,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3월 5일	기후포럼- ‘비상하는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3월 5일	핵발전소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위한 고창 토론회 참석
3월 6일	주암호 보전 협약식, 집행위원회 정례 회의
3월 7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례모임-양서류 현장수업,
3월 7일	전남대학교 사회봉사 참여학생 대상 OT
3월 8일	후쿠시마 3주기 탈핵문화제
3월 11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모임

3월 13일 회원강좌- '힐링명상' '기후천사' 정기모임, 탈핵행동 회의
 3월 14일 환경과 인권 포럼 추진 회의, 지구의 날 회의
 3월 15일 회원 산행 -무등산
 3월 16일 회원모임 '물한방울 흠뻑' 정기 답사
 3월 1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 회의
 3월 17일 기무부대, 통합병원 공원화 토론회 준비회의
 3월 17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및 비상계획구역 확대 의견서 전달 참여
 3월 18일 환경정책 회의(6.4 지방선거 대응), 웹 소식지 발송
 3월 19일 6.4 지방선거 대응 회의
 3월 20일 회원강좌- '힐링명상, 광주시민협 운영위원회 회의
 3월 20일 지식강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 관련 성명
 3월 21일 탈핵행동 회의
 3월 22일 물의 날 행사 _ 영산강 답사 및 정화활동
 3월 24일 화쟁순례 회의
 3월 25일 인권포럼 준비회의
 3월 26일 호남권 탈핵행동 연석회의, 기무부대 통합병원 답사
 3월 26일 빅에스크 거리캠페인(충장로)
 3월 27일 회원강좌(이병님)- '힐링명상'
 3월 27일 자원순환교육 준비회의, 지구의 날 준비회의
 3월 27일 푸른길 구간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성명
 3월 28일 수완중학교 에너지 교육

4월

4월 2일 화상 경륜장 반대 기자회견, 빈용기 보증금병 실태조사
 4월 2일 탈핵행동 회의, 빈용기 보증금병 실태조사
 4월 3일 6.4지방선거대응 기자회견, 집행위원회 정례 회의
 4월 3일 인권포럼 간담회
 4월 4~5일 수완중 에너지교육, 광주-전남 임위원 활동가 수련회(신안압해)
 4월 7일 영광 도보순례(화쟁코리아), 의료민영화정지 기자회견
 4월 7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모임
 4월 8일 웹 소식지 발송,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교육

4월 10일 화정남초 '자원순환교실' 교육, 옛 기무부대-공원화 토론회
 4월 11일~12일 영산강순례(화쟁순례), 쓰레기 배출조사(자원순환마을)
 4월 14일 지구의 날 캠페인
 4월 15일 기후포럼·자전거 활성화
 4월 16일 수산물 방사능조사 시료채취
 4월 17일 기후천사 정기모임
 4월 18일 수완중 에너지교육
 4월 19일 지구의 날 행사(원당산 광산구 공원)
 4월 21일 탈핵학교1강
 4월 22일 5월 자연나들이 답사(곡성), 웹 소식지 발송
 4월 22일 탈핵학교2강,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4월 23일 인권포럼 준비회의
 4월 25일 자문회의
 4월 25일 세월호희생자 추모 광주시민사회 합동분향
 4월 26일 무등산 등반
 4월 28일 탈핵학교 3강, 지구의 날 평가회의
 4월 29일 탈핵학교4강
 4월 29일 도시철도 2호선 토론회

5월

5월 1일 세월호 분향소 담당
 5월 1일 기후보호 캠페인
 5월 2일 환경과 인권 포럼 워크숍
 5월 2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샘플 답사
 5월 7일 웹 소식지
 5월 8일 집행위원회 회의,
 8월 8일 화정남초 '자원순환교실' 교육, 회원강좌- '힐링명상'
 5월 10일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자발적 협약 업체)
 5월 11일 밀양 지원(농활)

5월 12일	밀양 지원(농활), 동아시아 기후포럼 회의
5월 13일	탈핵행동 회의, 전국 사무국 처장단 회의
5월 13~16일	신입 활동가 수련회(황현미 간사)
5월 15일	회원강좌(이병님)- '힐링명상', 밝은삶 맑은터' 5월 소식지 발송, 환경과 인권 포럼 저녁 간담회
5월 16일	수완중 교육
5월 17일	세계 인권도시포럼 개최(환경과 인권)
5월 21일	6.4 선거관련 지속가능 정책제안
5월 21~23일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조사
5월 22일	화정남초 '자원순환교실' 교육
5월 22일	회원강좌(이병님)- '힐링명상'
5월 22일	시도지사 후보 선거 탈핵정책제안 및 질의
5월 23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5월 23일	동산초 광주천교육
5월 23일	도시철도 2호선 대응회의
5월 24일	어린이 자연나들이-곡성 생태체험관
5월 27일	웹 소식지 발송,
5월 27일	초록연대 거리 캠페인
5월 27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모임
5월 2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5월 29일	시도지사 후보 탈핵정책 질의 답변에 대한 성명
5월 30일	도시철도 2호선 대응회의

6월

6월 1일	'물한방울 흠뻑' 정기모임(모내기)
6월 3일	광주에너지시민연대 회의
6월 4일	'물한방울 흠뻑' 정기모임(고구마 심기)
6월 5일	집행위원회 회의
6월 6일	주암호 불법경작 금지 캠페인
6월 6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
6월 10일	자원순환연대 빈용기보증금 혼입비율 교육
6월 10일	밀양방문, 웹 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6월 11일	무등산 국립공원 의제길 탐방로 확장계획에 대한 성명
6월 11일	밀양송전탑 공사 행정 집행에 대한 규탄 성명
6월 12일	화정남초 '자원순환교실'
6월 12일	기후천사 정기모임
6월 16일	'밝은삶 맑은터' 6월 소식지 발송
6월 17일	빈 용기 실태조사(보해양조)
6월 17일	사무총장과의 간담회_ 노후원전(월성1호기)폐쇄 캠페인 관련
6월 17일	세계 인권도시포럼 평가회
6월 18일	민선6기 준비위에 생태도시 정책제안
6월 20일	수완중 교육, 탈핵행동 회의
6월 21~22일	전국 회원대회- '원전에서 안전으로' (경주)
6월 22~24일	기후보호포럼 실무협의 회의(일본 도쿄)
6월 24일	빈용기 실태조사(하이트진로)
6월 24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6월 26일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주민간담회 회의,
6월 26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6월 26일	영산강 외래종 큰빗이끼벌레 실태조사 및 성명 발표
6월 28일	어린이 자연나들이-황룡강, 월봉서원 생태하천 탐방
6월 30일	원전주변 수산물 방사능조사 시료채취

7월

7월 1일	영산강 조사, 북부순환도로 대책 회의
7월 2일	지방선거 평가회의(광주시민협), 자원순환마을 주민간담회
7월 3일	집행위원회·자문위원회 회의
7월 4일	수완중 교육
7월 7일	에너지의 날 준비회의, 방재구역 탈핵지역 대책위원회 회의
7월 8일	영산강 조사, '물한방울 흠뻑' 정기모임, 녹색 소비교육
7월 8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하천분과 회의(푸른광주21협의회)
7월 9일	탈핵행동 9월 정기회의, 밀양 송전탑 반대 캠페인
7월 10일	기후천사 강좌, 화정남초 '자원순환교실' 교육
7월 11일	4대강사업 관련 수자원공사 사장 발언에 대한 성명
7월 14일	자원순환마을 교육-천연 화장품 만들기

7월 15일	녹색소비교육-푸드마일리지&천연치약
7월 16일	밀양 송전탑 캠페인
7월 18일	광주천, 서방천 하천 오염도 조사
7월 20일	'물한방울 흠한줌' 정기 답사-지리산
7월 21일	자원순환마을 교육(페트병), 웹 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7월 21~22일	도시숲 분과 부산공원 녹지 답사
7월 23일	대기질 조사, 4대강사업 찬성론자 우기중 전남 부지사 내정 철회 촉구 성명
7월 24일	화정남초 '자원순환교실', 방재구역 탈핵지역 대책위 회의
7월 25일	그린스타트 중간보고회의
7월 26일	화순동력 민원 답사
7월 28일	자원순환 마을 교육-쿠션 만들기
7월 29일	수산물 방사능 조사 시료채취(남광주, 양동시장)

8월

8월 4일	자원순환마을 교육
8월 5일 ~ 6일	빅에스크 캠페인
8월 6일	빅에스크 캠페인
8월 8일~ 9일	어린이 여름캠프- '떠나자 하천보물 찾아 생태마을 찾아'
8월 12일	기후포럼,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8월 13일	에너지의 날 회의
8월 14일	'함께사는길' 8월호 발송
8월 15일	'물한방울 흠한줌' 답사, 모래톱영산강
8월 16일	'물한방울 흠한줌' 답사, 하천 정화활동
8월 19일	전국 사무처장단 회의, 송전탑 반대 기자회견 (경북청도)
8월 21일	차 없는 날 회의, 동아시아 포럼 준비회의
8월 22일	에너지의 날, 동아시아 포럼 회의
8월 25일	이낙연전남지사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 주장에 대한 성명
8월 26일	웹 소식지 발송
8월 28~29일	초록활동가 워크숍

9월

9월 1일	자원순환마을 교육, 어린이 자연나들이 답사(영광)
9월 2일 ~ 3일	빈 용기 실태조사
9월 2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시사모)' 정기모임,
9월 2일	탈핵 지역 대책위 회의(대전)
9월 3일	세월호 단식천막, 노후원전 폐쇄 서명 및 캠페인
9월 4일	집행위원회 정례 회의, 광주전남 탈핵행동 정기회의
9월 5일	수완중 교육,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례모임
9월 6일	녹색소비 캠페인
9월 11일	신입활동가 첫 출근(정은정),
9월 11일	웹 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노후원전 폐쇄서명 및 캠페인
9월 12일	하천 네트워크 회의, 광주천 문화제 회의
9월 15일	자원순환교육, 밝은삶 맑은터' 8,9월 소식지 발송
9월 16일~18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이봉희(삼척반핵 대책위 사무국장)오찬
9월 17일	노후원전 폐쇄 서명 및 캠페인
9월 19일	수완중 교육
9월 20일	서구 회원 모임
9월 22일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 환경통신원 모임
9월 23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모임
9월 24일	수완중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
9월 24일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노후원전 폐쇄 서명 및 캠페인
9월 25일	백운초 '자원순환교실' 교육, 명상프로그램(이병님)
9월 25일	시민단체협의회운영회의, 명상프로그램(이병님)회원 진행)
9월 26일~27일	전국환경연합 임위원 워크숍, 전국 국처장단 회의
9월 26일	가리왕산 보전 캠페인
9월 26일	여성 활동가 수련회, 김남주 시인 추모행사 참여(시사모)
9월 27일	자연나들이-영광 용암마을, 일곡 양산 회원모임
9월 28일	'물한방울 흠한줌' 답사
9월 29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평가회의, 자원순환 화단조성(백운초 앞)
9월 29일	광주전남북 탈핵행동 방재구역 워크숍
9월 30일	기아자동차 악취방지 민관협의체 회의

10 !

10월 2일	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 연석회의, 탈핵공동회의
10월 3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모임
10월 6일	세월호 천막, 수산물 방사능조사, 체육대회 회의
10월 7일	대기질(NO2) 조사, 아이쿱 강좌, 웹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10월 8일	동아시아 기후포럼 평가회의
10월 9일	에너지 정책 중간보고회(박지연, 차인수, 지준명)
10월 10일~12일	CBD 평창(박지연)
10월 11일	'양산일곡' 모임(순창)
10월 13일	하천답사(황룡강 정화활동), 안전예방교육
10월 14일	체육대회 준비회의
10월 15일	서구모임+양산일곡(푸른길 농장다리),
10월 15일	원전주변 방사능 시료 채취(영광)
10월 16일	백운초 '자원순환교실', 회원 체육대회 준비회의
10월 17일	수완중 교육
10월 18일	자원순환마을(벽화그리기)
10월 20일	영광 풍선날리기,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기모임,
10월 21일	탈핵강좌
10월 23일	백운초 '자원순환교실',
10월 23일	원전 수산물 보고회
10월 24일	시민햇빛발전 준비모임
10월 25일	회원체육대회(동강대)
10월 27일	도시농업 강좌(전남대),
10월 27일	수산물 발송
10월 29일	악취 토론회,
10월 29일	한빛원전 안전성 토론회
10월 30일~31일	문화전당 교류전(자원순환교육), ,
10월 31일	방재계획 발표
10월 3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의
10월 31일	인권도시 회의

11월

11월 1일	어린이자연나들이
11월 3일	이도경 첫 출근
11월 3일	글로벌기후강좌 2강 '기후변화 글로벌이슈 따라잡기'
11월 4일	웹 소식지 발송
11월 5일	탈핵행동회의
11월 6일	집행위원회 회의, 자원순환교실
11월 7일	수완중 에너지교육
11월 8일	광주천문화제, '물한방울 흠뻑' - 고구마캐기
11월 10일	글로벌기후강좌 3강 '우리집 에너지자립이야기',
11월 10일	월간지 '함께사는길 11월호' 발송
11월 11일	백운초 자원순환교실
11월 11일	무등산 군부대이전과 복원대책회의, 기후교육네트워크 회의
11월 15일	'고마가라 고리1호기!' 전국 집중행사 (부산)
11월 17일	시민햇빛발전소 준비모임,
11월 18일	광주시 2015 환경예산 대응 관련 환경단체 회의
11월 18일	무등산 군부대이전과 복원대책회의, 웹 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11월 20일	녹색소비포럼, 무등산 군부대이전과 복원대책회의
11월 20일	문화콘텐츠지역교류전 결과보고회, 무등산 군부대 이전과 복원대책회의
11월 21일	수완중 에너지교육(발표)
11월 22일	전국 환경연합 국.처장 회의 및 미래리더쉽 비전워크숍
11월 22일	회원모임 '시를사랑하는모임' '일곡양산모임'
11월 24일	인권포럼 준비회의
11월 25일	후원의 밤
11월 26일	자원순환최종발표회, 빛공해간담회 참석
11월 26일	맑은삶 맑은터 190호 발송
11월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11월 27일	포드후원금전달식(광주시민환경연구소)
11월 28일	무등산 군부대이전과 복원대책회의, 녹색소비간담회

12월

12월 1일	햇빛발전소 3차회의
12월 4일	집행위원회 회의
12월 5일	모래톱 빛고을 1000일 순례
12월 9일	비용기 비대상 혼입비율조사(불시), 웹메일 '자연지기' 발송
12월 10일	2020도시계획 자문회의,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12월 12일	무등산 군부대이전과 복원대책토론회
12월 12일	찾아가는 ESD교육- 무안
12월 15일	비용기 비대상 혼입비율조사(정기)
12월 15일	회원모임 시를사랑하는모임
12월 15일	소식지 월간지 발송
12월 16일	수돗물회의
12월 17일	비용기 비대상 혼입비율조사 (순천)
12월 17일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도시계획 회의
12월 17일	선우학교 바자회 기부금 전달
12월 18일	찾아가는 ESD교육- 함평 인권준비
12월 20일	해피선샤인교육, 물휴 빛고을 1000일 순례
12월 22일~26일	찾아가는 ESD교육- 곡성,
12월 23일	웹메일 '자연지기' 발송, 어린이문화원 세미나
12월 23일	푸른광주21협의회 총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답사
12월 26일	자원봉사인증요원교육
12월 26일	광주 대기질개선을 위한 시민활동모색토론회
12월 28일	총회준비위원회회의
12월 29일	무등산 군부대이전과 복원대책회의
12월 29일	도시계획회의
12월 29일	햇빛발전소 4차회의
12월 30일	사업평가(사무처)
12월 31일	종무식

감사보고 안

감사보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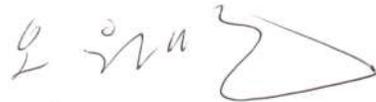
2014년 광주환경운동연합 감사보고서

- 감사기간 : 2015년 1월 7일 ~ 1월 9일
- 감사장소 : 사무실
- 감사내용 : 2014년 회계연도(1/1~12/31)의 사업 및 재정
- 수감자(참석자) : 임낙평 공동의장, 최지현 사무처장, 정은정 간사, 이도경 간사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5년 01월 09일

감사 오 원 만



감사 김 정 민



[사업감사]

탈핵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 활동, 4대강사업 대응, 기후보호를 위한 여러 포럼과 캠페인, 대기질 조사나 방사능오염 식품 조사와 같은 안전한 환경을 위한 사업,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조사와 마을사업, 환경교육, 회원활동, 지역 및 전국연대 등 참 많은 일을 성실하게 올해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인적 구조나, 재정적 어려움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지속되길 바라며,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환경연합을 기대하며 몇가지 제안 의견을 드립니다.

1. 삶의 질, 더 나아가 먹고 사는 문제 등 지역의 구체적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환경운동상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후자들은 시민단체 활동을 '반대를 위한 반대' '지역 발전 발목잡기', '이상적인 한가한 소리' 식의 편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환경연합 주장의 지향점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성 사업을 바로 잡고 타당성을 따지는 일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부류가 하는 폄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물리적 환경보전과 함께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과 연계된 상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진 않았는지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예컨대, 탄소저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단순히 규제나 제약만이 아니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이미지 제고 등 지역발전상을 발굴하는 것이고 결국 먹고사는 일이라는 식의 표출처럼 말입니다.

2. 수용자 입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참여' 는 시민단체의 필수 과제입니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 하려면 시민들의 인식과 의사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장의 정당성에만 인식이 매몰되어 각각의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리고 이해할 지에 대해 고민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활동 내용과 방식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시민들 인식과도 동떨어져 갈 것입니다. 인기성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 내용이 시민들의 눈높이와 가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3. 중장기 목표와 사업방향 설정, 후속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의 활동 특성상, 현안 등 발생된 문제에 대해 즉각적 대응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한 시간적 범위를 길게 두며, 해당 목표를 위해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광주환경연합의 사업계획의 큰 흐름은 중점사업 연속사업 부분으로 설정하고 아래에 단위 사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해의 사업계획이 다음해로 연속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신규사업이 수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 단기 목표설정이 좀 더 명확했으면 합니다. 이에 맞추어 연속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그리고 한해 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이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부문별 목표에 어떤 기여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도권의 정책과 방향의 향배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4. 25년의 평가 그리고 향후 비전과 과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광주환경연합의 역사는 전신인 광주공해문제연구회 창립기준으로 보면 25년이 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며 그 무게만큼 큰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을 준비하는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25년 혹은 30년의 평가 그리고 향후 비전과 과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사회환경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전소 사고 등 안전문제와 직결된 큰 사고를 겪고 지나오면서 안전문제, 혹은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 등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역 부지의 향후 방향, 문화전당 주변 도시재생 등도 중요한 지역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가 환경연합의 의제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조직 성원,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 기초가 탄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하고 지적한 내용이 그간 부실하거나 부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재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중요성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되어 과정에서

그 기여도를 본다면 쉽게 이해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큰 만큼, 시민과 더 소통하면서 변화 발전하는 환경연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계감사]

광주환경운동연합 2014년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장부와 현금 및 자산 등의 항목별 잔액을 확인하였고,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처리,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광주환경연합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바, 각기 관리 현황 및 상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2014년 일반회계 재정 결산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I. 당기수지	회비, 후원금 등 당기수입	284,153,431 원	
	경상비, 사업비 등 당기지출	290,680,228원	※ 장기발전기금 30,091,773원
	재정수지	(-)6,526,797 원	
II. 기초이월현금		40,614,384 원	2013년 잔액
III. 기말현금잔액		34,087,587 원	2014년 잔액

광주환경운동연합의 2014년 회비, 후원금 등을 통한 당기수입은 284,153,431 원, 경상비와 사업비 등 당기지출은 290,680,228원으로 재정적자 6,526,797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4년 당기수지가 재정적자로 결산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 3,000여 만원이 장기발전기금 항목으로 하여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향후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장기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등 장기적 안정을 꾀하게 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현재 사무실이전을 목표로 하는 바와 같이, 장기발전기금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입에서 회비, 후원금 등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지출에서도 인건비 등 경상비와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회비의 감소입니다. 회원관리 및 회원모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연합의 수입구조를 보면 회비수입 비중이 높습니다. 시

민단체로서 바람직한 재정구조입니다. 환경운동 부문에 매진하는 것만큼 회원을 늘리고 또 관리하는 것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특별회계에는 각 상근활동가의 퇴직금 적립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거나 해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즉 자금사용제한이 엄격해야 합니다. 급여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의 당장의 필요나 긴급성 때문에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향후를 대비한다는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퇴직금 재원관리를 위해 퇴직연금가입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 사업부문별 혹은 원활한 회계 관리를 위한 여러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간혹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거래 계좌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른 신규 개설을 하지 않고 기존 계좌를 이용하는 등, 적정 범위에서 계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비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거래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써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타 신고 및 협력 사항을 확인하고 실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별 결산내역을 홈페이지 그리고 단체 회보를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산 대비 결산을 보면, 전체 달성률은 약 77%입니다. 그중 사업비 달성률 약 50~60%가량입니다. 향후, 예산을 과하지 않게 수립하지 않도록 하고 실행사업 계획에서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규모에 비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환경연합 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가, 임원 분들의 노고 덕분일 것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14 사업보고(안)

회원 · 조직화 사업

□ 사업목적

-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 실현을 위한 다양한 회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환경이슈 확산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

□ 사업개요

- 다양한 형태로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생태적 가치를 담은 시민(회원)참여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환경이슈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신규 회원모임 구성 및 기존 회원모임 활성화

□ 사업내용

1. 회원 현황 및 회비현황

1) 회원현황(2014.12.31 현재)

회원구분	회원수	회비납부 방법	회원수
개인회원(회비:5천원)	1,485	자동이체	1,531 (%)
개인회원(회비:1만원)			
가족회원(회비:2만원)	62	지로	39 (%)
단체, 기업회원(회비:5만원)	13		
어린이청소년회원(2천원~3천원)	140	통장/직접납부/기타	174 (%)
평생회원(1~2백만원/1회이상)	44		
계	1,744	계	1,744(100%)

2) 회비현황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회비(천원)	13,447	12,490	14,005	14,005	13,940	12,736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비(천원)	13,137	12,561	12,695	13,480	12,540	12,335
*후원금을 제외한 순수한 회비 총액 : 157,371,000원						

2. 회원 모임

[물한방을 흠뻑]

- 일시 : 월 1회 정기 모임활동과 농사계절에 맞게 수시로 추가모임 진행
- 내용 :
 -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지혜를 배우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 생태답사 진행
 - 14개 가족, 약 35명 참여
 - 고구마를 직접 재배해 수확하고, 후원의 밤 행사에서 판매하는 등 생산적인 활동

날짜	장소	내용
2월 15일(토) ~17일(월)	제주도 생태답사	정기총회
3월 16일(일)	담양 삼인산	등반 및 답사
5월 24(토)~25일(일)	여수 금오도	섬마을 생태벽화 그리기, 비 링길 에코트레킹
6월 1일(일)	장성 수해리	농사체험 모내기
6월 4일(수)	북구 효령동	농사체험 고구마심기
8월 15일(금)~16일(토)	진도군 가사도	가사도 섬여행
9월 28일(일)	전북 남원시 인월면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
11월 2일(일)	함평 잠월 미술관	박태규 회원 개인전 관람
12월 20일(토)	푸른길 구간	빛고을 1000일 순례 참여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시 등 문학 작품을 감상 및 낭송활동
- 시 읽기 모임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 회원간의 단합 및 친목활동 전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공동체를 모색하는 회원모임. 20여 회원
- 매월 1~2회 10여명의 회원 참석하여 시낭송회 진행
- 나희덕 시인과 함께 하는 시읽기 행사
- 김나주 시인 추모 문화행사- 나도 김나주다 참여(김나주 시인 시 낭송회)
- 생태와 문학을 교감하고 회원 단합을 위한 생태답사 진행
- 일곡양산모임과 교류회 - 푸른길 달빛 걷기 및 문화행사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일시 :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월례모임
- 장소 : 광주천과 지천 등 주요 하천 등
- 내용 :
 - 광주천과 지천 답사 및 모니터링, 사진기록, 온라인 Daum 모래톱 카페 자료 구축 등 온오프라인 활동
 - 광주천 사진기록 및 전시회
 - 광주천 체험 및 하천생태 교육 개최(동산초, 중고생 대상)
 - 광주천 생태모니터링(구간별 모니터링)
 - 영산강 문화답사, 주암호 수질개선 홍보활동
 - 회원 하천교육
- 주요활동 일지

날짜	장소	내용
1월 5일	나주, 영산포	정기총회
2월 11일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하천교육_도심하천과 습지의 새
3월 7일	소태천 일대	하천교육_ 성하철 교수와 함께하는 '양서류이야기'
4월 8일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하천교육-양서과충류 수업
5월 3일	무등산	광주천 시원지 무등산 샘골 답사
5월 23일	광주천 원지교 일대	동산초 광주천생태체험학교
6월 6일	주암호 일대	주암호 수질보전 캠페인
7월 7일	광주천 선교 일대	정기답사 모니터링
8월 15일	나주 국립박물관, 반남고분군	영산강 문화답사
9월 5일	광주천 두물머리 일대	정기답사 모니터링
10월 9일	광주천 무진교 일대	정기답사 모터링
11월 8일	광주천 광주대교일대	광주천 문화제_사진전, 답사 등

[양산일곡 회원모임]

- 일시 : 지역회원모임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생태답사를 진행

• 내용 :

- 지역모임으로 가족단위의 참여가 많음
- 담양, 순창, 창평 등 여러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힘
- 지속적인 모임으로 소모임정착화

날짜	장소	내용
2월	담양 삼인산	에코 트레킹
3월	영산강 극락교	물의 날 영산강 정화활동 및 답사
6월	창평 삼지내마을	어성초 효소 담그기
8월	양산재	한 여름밤의 호수산책
10월	진북 순창	가을맞이 알밤따기
	푸른길	푸른길 별밤산책
11월	영산강, 담양습지	자전거 타고 영산강 둘러보기

[환경통신원]

- 버스 운전기사 중심의 회원모임.
-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 현장 고발과 시정 요구 연중 활동.
- 승용차 없는날 캠페인- 녹색교통 캠페인
- 대기질개선 캠페인 참여
- 70여 회원 참여. 월 정례 모임

[녹색감시단]

- 택시기사 중심의 회원모임.
- 자동차 매연 및 환경오염 현장 고발과 시정 요구 연중 활동.
- 20여 회원 참여. 월 정례 모임
- 상시적 환경연합 회원활동 참여

3. 회원만남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1) 회원체육대회

- 일시 : 10월 25일(토)
- 장소 : 광주 동신대학교 대운동장(두암동)
- 평가 :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회원과 회원, 회원과 사무처 간의 유대감 형성을 목표로 진행. 많은 회원들의 다양한 후원으로 행사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진행. 약 18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됨.

4. 홍보사업

1) 소식지 '밝은삶 맑은터' 발행 및 발송

-일시 : 1월~12월 총 11회(8/9월호 통합)

-내용 : 단체활동과 회원소식을 알리는 회원 소식지로 발행, 우편으로 발송함. 월1회 발행 원칙을 못 지켰음. 소식지 규격과 형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향후 필요함.

2) 월간지 '함께 사는 길' 구입 및 발송

-일시 : 1월~12월 총 12회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 '함께 사는 길' 편집국에서 발행하는 월간 환경전문지로 월 1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중 구독을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함.

3) 웹메일 '자연지기' 발송

-일시 : 1~12월 총 24회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내용 : 활동소식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해 회원에게 알리고, 환경현안에 대한 활동을 회원에게 전달함. 별도로 웹메일 형태의 주요 행사안내 메일 수시 발송.

4)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활용

-일시 : 연중

-내용 : 활동소식 및 각종 활동자료를 회원 및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SNS 연결 기능 등 홈페이지 기능 강화. 회원 및 시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확대.

5) 후원의 밤 행사 개최

•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18:30~21:00

• 장소 : 광주 서구 상록회관 4층 연회장

• 내용 : 기념식, 축하공연, 만찬, 2℃ Down캠페인, 물품 고구마 판매. 200여명 참석.

□ 사업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회원배가 활동이 저조했음. 회원확대캠페인이 이루어지지 못함. 여러 활성화 방법필요

-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짐. 양산일곡모임,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

람들 모임 등 지역 및 주제별 회원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됨. 또한 서구 회원모임 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도됨. 등산모임 등 프로그램 시도 됨. 그러나 예전에 비해 활동이 미진한 소모임의 경우 재 활성화 방안 필요함.

- 회원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 회원들의 참여를 넓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2. 향후 방향

-신규 회원모임 구성 및 기존 회원모임 활성화.

-각종 참여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회원들의 활동 참여도 증가.

-회원체육대회 등 기존 회원사업 안정적으로 진행.

-체계적인 회원확대캠페인 진행.

-각 소모임 별 대표가 중심이 된 소모임 활성화방안 필요.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지도위원 모임]

□ 주요내용

- 집행위원회, 자문회의 정례 회의

- 집행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 (1/9, 2/6, 3/6, 4/3, 5/8, 6/5, 7/3, 9/4, 10/2, 11/6 개최 8월은 서면보고로 대체), 매월 활동 및 재정 보고, 주요 사업을 비롯한 조직 운영 등의 안건 협의

- 자문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집행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개최 (1/9, 5/8, 10/2), 활동 및 재정 보고, 주요 사업과 조직 운영 등의 안건 협의

- 기타 임위원 단합 및 친목을 위한 행사. 환경연합 전국 단위 행사 및 주요 시국 현안 대응의 연대 프로그램에 임위원 참여

□ 사업평가

- 지도위원 모임은 추진되지 못함. 지도위원 참여 확대가 지난해 평가로 언급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함.

- 위원들이 회원 모임에 적극 참여, 주요 행사의 준비 및 실행위원등으로 참여하면서 조직 사업 활성화. 한편, 조직 강화 측면에서 인적 확대 및 여타 위원회 활성화가 과제임

기후에너지

□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및 국제네트워크의 활성화
- 지역의 기후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시민실천의식 고취

□ 사업 개요

-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를 주축로 한 제4회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
- 지역의 전문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기후포럼의 활성화
-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주제로 한 시민대상 강좌 개최

□ 사업내용

1.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1)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 일자 : 9월 15일(월)~18일(목)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및 전남도 일원
- 내용 : 한중일의 NGO, 전문가, 행정, 기업 등 환경 기후 에너지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장이 열림.
- 세부 프로그램 :

기후재앙시대, 동아시아 기후전략은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1. 2015 이후 한중일 각국의 기후정책 • 세션 2. 저탄소동아시아를 위한 시민활동 • 세션 3. 녹색도시, 녹색자치 • 특별세션. 후쿠시마 이후 동아시아 핵에너지 향방
현장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투어 1. 주민이 만들어가는 저탄소 녹색마을 • 현장투어 2. 전남,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찾아서

- 참여 : 한중일(대만)NGO, 전문가, 행정 관계자, 시민 기타 300여명 참여(내국인 260여명, 일본 12명, 중국 27명, 대만 1명)

2) 포럼 준비회의

- 기간 : 1월~9월
- 내용 :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계획, 진행경과 공유 및 역할 분담
- 참여단체 : 푸른광주21협의회, (재)기후변화대응센터, 광주생명의 숲, 광주에코바이크,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3) 기후네트워크 실무회의

- 일시 : 2월 26일, 6월 22일(일)~24일(화)
- 장소 : 환경연합 사무실, 일본 도쿄
- 내용 : 한중일 실무자 준비회의의 진행함. 포럼 일정과 프로그램 논의
- 참여단체 : 광주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중국 환우과학기술센터, 푸른광주21협의회 참여

2. 시민 기후-에너지 강좌 '글로벌(Glocal) 기후변화 이야기'

- 기간 : 10월 27일(월)~11월 10일(월)
- 장소 : 전남대학교 농과대학/광주NGO센터 공동체홀
- 내용 :

회차	일자	주제 /내용	강사
1	10월 27일	도시농업으로 기후변화 대응하기	김길용(전남대 농업생명대학 교수)
2	11월 3일	글로벌 기후이슈 따라잡기	배정환(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	11월 10일	우리집 에너지 자립 이야기	안병일(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참여 : 65명 참여

3. 기후보호 캠페인

1) 빅에스크(Big Ask) 캠페인

- 기간 : 연중상시
- 장소 : 충장로 일대, 수완지구 인라인 경기장, 큰별초등학교 등
- 내용 : 기후변화법 안내 및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 결과 : 1258명 서명

* 전국 빅에스크 네트워크는 4만 4천여 시민 서명 받아 기후변화법안 발의함. 2015년 3월까지 캠페인 진행 예정

4. 기후보호포럼

1) 운영회의

- 일시/장소 : 1월 16일(목) 오후5시 / 환경연합 사무실
- 내용 : 기후보호포럼의 운영 및 포럼위원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 2014년 사업계획 구상 및 토의
- 참여 : 기후포럼 차인수 위원장 외 8명

2) 제1회 기후보호포럼

- 일시 : 3월 5일(수) 16:00~18:00
- 장소 : 광주 NGO 센터 다목적강당
- 내용 :

비상하는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 좌장 : 조성용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주제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경 중(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전략산업과) :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향후계획 • 차 인 수(기후보호포럼 위원장, 동신대학교 교수) :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언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준명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보호포럼 위원 • 최길성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 사무처장 • 박승준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 참여 : 40명 참여

3) 제2회 기후보호포럼

- 일시 : 4월 15일(화) 16:00~18:00
- 장소 : 광주 NGO 센터 다목적강당
- 내용 :

저탄소 녹색교통, 자전거 탈 수 있는 도시 - 좌장 : 최완석(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주제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운(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도로과 자전거정책담당) : 광주시 자전거 교통의 현황과 향후 계획 • 윤환(도시교통기술연구원) : 광주시 녹색교통 자전거 활성화 방안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사무국장 • 장화선 전남대녹색환경연구소 사무국장 • 정하옥 광주발전연구원 도시기반정책연구실 실장

- 참여 : 70명 참여

4) 제3회 기후보호포럼

- 일시 : 8월 12일(수) 15:00~17:00
-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내용 :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소 - 좌장 : 차인수(동신대학교 수소에너지학과 교수)	
주제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재호(광주광역시 전략산업과 사무관) :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 및 미래방안 • 강병식(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 햇빛발전 협동조합 설립 A-Z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진숙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최길성 기후변화대응센터 사무처장 • 김동호(주)무한글로벌 이사

- 참여 : 40명 참여

5. 제11회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

- 일시 : 8월 22일(금) 14:00~21:10
- 장소 : 두암동 라인동산아파트 단지내, 마을카페 4개소
- 내용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어컨 끄기, 소등행사 등 시민참여를 통한 기념행사
- 주요 프로그램 : 전력피크타임 에어컨 끄기, 설정온도 2° C 올리기, 기념식, 에너지 절약 부대행사 등
- 결과 : 본행사 200명 참여/아파트 500세대 소등행사 참여/카페4개소 연계프로그램

6. 녹색소비

- 기간 : 7월~11월
- 장소 : 환경연합 소회의실/광주YMCA 어비스룸
- 내용 : 녹색소비를 통한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

회차	일자	주제 /내용	강사
1	7월 8일	• 우리들의 녹색소비 이야기 • 탄소라벨링과 녹색소비	이종화 레크레이션 강사 손희정 광주소비생활연구원 원장
2	7월 15일	• 로컬푸드와 녹색소비 • 천연치약 만들기	이종국 광주NGO시민재단 본부장 배경아 버블스완 대표
3	7월 22일	• 희망의 거래, 공정무역 • 녹색소비 거리 서명캠페인	이선화 아이쿱식생활교육센터 강사
4	11월 20일	• 에코웨딩과 녹색소비 포럼	이광렬 그린웨딩포럼 대표 외 3명

- 참여 : 100명 참여

7. 기후천사

-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내용 :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대해 공부하는 회원모임

-재능나눔강연 형식으로 각자 활동영역의 이야기를 함

회차	일자	주제 /내용	강사
1	2월 13일	영산강 이야기	홍기혁
2	3월 13일	환경교육 현장이야기	이진석
3	4월 17일	'구름비, 바람이 분다' 관람	
4	5월 17일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과 인권' 참여	
5	6월 12일	도심숲 푸른길 이야기	기세현, 박병섭

□ 사업평가

1. 종합평가

-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기후관련 네트워크를 결속시키는 계기를 만들. 원활한 진행과 다양한 논의로 국내외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이후에 기후네트워크를 유지해 가는 것이 관건임.
- 지난해에 이어 기후변화에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기획하여 활동의 연속성을 가짐
- 환경운동연합의 중점사업으로 연중 서명캠페인을 통한 기후변화법 발의

2. 개선방향

- 신재생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 및 민원에 대응하는 활동이 요구됨
- 기후포럼을 통한 정책제언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함.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시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함.
- 중점 사업에 집중이 필요함.

탈핵운동

□ 사업목적

- 생활주변의 핵과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시민교육 및 안정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
- 전국 탈핵 중점사업인 ‘노후원전 폐쇄’, ‘에너지 전환’,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등 핵관련 현안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적 연대활동.
- 핵없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탈핵운동
- 실효성있는 방재법 제정 등, 안전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궁극적으로 정책화 시키기 위함.

□ 사업내용

1. 후쿠시마 3주기 행사

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3년, 생의 기록”

- 일시/장소: 3월 8일(토) 14시~17시./ 남광주 푸른길기차 광장
- 프로그램

내용	무엇을/어떻게	누가
14:00~14:40 (기념식 등)	말씀1. 후쿠시마는 아직...	김정선
	말씀2. 우리는 어떻게...	황대권
	영상. 후쿠시마에서 온 편지	혼다아유미
	퍼포먼스, 공연, 캠페인(탈핵 책 전시, 자주달개비, 친환경에너지 체험 등)	

2) 후쿠시마 3주기 성명발표

- 일시:3월11일/우체국
- 내용: 핵없는 광주전남 촉구 및 생활 속 탈핵운동 강화
- : 광주 5개 종단 탈핵성명 및 절전소 운동 선포

2. 방사능 방재대책

1) 방사능 풍선날리기 프로젝트

- 일시/장소 : 2014년 10월 8일(수) 12시./ 영광한빛원전
- 내용: 광주시와 광주시민의 영광핵발전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방재법을

만들기 위한 취지 행사. 방사능 확산범위를 추정하기 위해 풍선날리기를 진행

2)비상계획구역 확대 촉구 기자회견 및 원안위원장 면담

- 일시/장소: 3월17일 1시/서울 원안위

: 원안위원장 면담을 확대에 따른 과학적 근거 마련과 예산마련 촉구

3) 광주전남북 방재구역 확대 워크숍

-일시/장소: 10월7일 17일, 29일/정읍 한 살림

-내용: 일본의 방재법을 바탕으로 영광원전 등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및 확대에 대한 학습, 방사능 방재법의 한계, 일본의 방재법, 지역의견 수립, 실효성 등

4) 광주 방사능방재대책 수립 좌담회

-일시/장소: 2014년 11월 10일(월) 15시 00분 /광주시의회

-내용: 영광원전 타당한 비상계획구역 설정 촉구와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촉구. 방재대책에 대한 공론화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프로그램

- 방사능 풍선날리기 결과발표
- 주제발제1. 방사능방재법 개정과 방사능 방재대책 대응방안 김혜정(원자력안전위 위원)
- 발표1. 후쿠시마 핵사고 후 일본 방사능방재대책_오하라츠나키(탈핵신문 편집위원)
- 발표2. 광주시의 방사능방재대책과 계획_장학기(광주시 안전정책관)
- 발표3. 영광원전의 안전성 문제 및 방사능방재대책_장영진(영광탈핵행동 집행위원장)
- 발표4.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을 위한 제안 _박상은(광주환경연합 팀장)

3. 시민과 함께 하는 핵없는 세상 만들기

1)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3기 ‘탈핵학교’

-일시/장소: 4월 21일(월)~ 4월 29일(화) 19:00/ 한살림 교육문화센터(동명동)

-강의내용

일자	주제/내용	강사
4.21	일본에 여행가도 안전할까?	오하라 츠나키(탈핵신문 편집위원)
4.22	2014년 핵 이슈와 현안	안재훈(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
4.28	영광원전은 왜 한빛원전으로 바꿨나?	양문수(영광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
4.29	방사능으로 부터 우리가족 지키기	이윤근(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2) 김익중교수 초청 시민탈핵 강좌

- 일시/장소 : 8월27일 오후 7시/NGO센터

- 내용: 방사능, 우리밥상에 올릴 것인가 를 주제로 진행

: 시민40여명 참여

4. 원전 주변지역 방사능 조사

1) 수산물 방사능 조사 시료채취

- 일시/장소: 4월~10월 /광주 소재 대형마트, 시장

- 내용: 방사능 핵종분석용 시료채취

: 명태, 고등어, 오징어, 대구, 콩치, 미역, 다시마, 곤과 알 등 대중이용 수산물 대상

2) 원전주변지역 토양 방사능조사 시료채취

- 일시/장소: 5월~10월 /영광원전

- 내용: 후쿠시마 사고 후 해류영향 분석을 위한 수산물 및 갯벌 등 채취 1-3-5km지점 갯벌

3) 원전주변 수산물 토양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 결과발표

- 일시/장소: 11월19일 오전10시 /환경연합1층 카페 회화나무

- 내용: 영광 발전소 주변에서 채취한 10개 토양시료중 2건에서 세슘(134+137)검출됨

4)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회

- 일시/장소: 12월2일 오전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4월부터 아름다운재단 후원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일본 등) 국내산 수산물을 샘플링 하여 방사능 오염여부 조사 결과 발표

5. 연대활동

1) 밀양 송전탑

- 밀양희망버스 1/25~26 전국3,000여명 참여(광주 40여명)/밀양
- 내용: 신고리핵발전소 가동을 전제로한 765kv 송전탑 건설이 주민들의 삶이 위협하고 있고, 지역민의 반대운동이 9년째 계속되고 있음. 연대를 위한 탈핵희망버스로 밀양방문
- 밀양전 영화상영1/22

2) 밀양 송전탑 캠페인 및 노후원전 폐쇄 서명

- 일시/장소 : 8월~10월 매 수요일 저녁6~7시/알라딘서점 앞
- 내용: 밀양송전탑 캠페인 및 노후원전(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서명운동

3) 광주전남북탈핵행동 연석회의

- 일시/장소: 3월26일 2시/전주 환경운동연합. 9월29일 /정읍한살림
- 내용: 광주전남+전북탈핵행동의 탈핵광역협의체 구성과 선거대응 논의
- 탈핵을 이한 선거 공약 및 의제 개발과 공동 대응

4)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탈핵 제안 및 질의

- 일시/장소 5월21일(수)~28일(수)
- 내용: 광주(7)전남(3) 광역지자체장 후보 대상 탈핵공약 제안 및 질의
-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 : 영광원전 폐로 로드맵 준비, 영광원전 사고 시뮬레이션 실시 등 제안

5) 화쟁코리아 100일순례-영광도보순례

- 일시/장소: 4월7일/영광군청~영광원전
- 내용: 불교 화쟁위원회(도법스님)의 영광도보순례참여

6) 또 하나의 원전마피아 원전제조사 - 탈핵 초청 좌담회

- 일시/장소 : 6월2일(월) 19:00/아름다운가게 용봉책방
- 내용: 후쿠시마원전 제조사 소송단 최승구 사무국장 초청
- : 소송의 진행상황, 후쿠시마 및 일본 상황, 대만의 탈핵운동 등

7) 영광 핵발전소 인근 주민 갑상선암 소송인 모집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광주천 및 도심하천 살리기 운동]

□ 사업목적

- 풀뿌리 하천지킴이 네트워크 활성화와 하천살리기 활동 전개
- 지역 하천현황 오염원, 자연도 평가 및 개선책 마련
- 시민참여 활동, 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상 공감 확산

□ 사업개요

- 광주천, 서방천, 황룡강, 증심사천, 석곡천, 풍영정천 등 도심 하천의 자연도 평가와 오염원 조사를 통해, 지역하천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 도출.
- 시민 학생의 광주천, 황룡강 등 하천 답사와 정화활동을 통해 수질개선, 지속 가능한 하천 미래 모색

□ 사업내용

1. 광주천 모니터링 및 하천 자연도 조사

1) 광주천 모니터

- 기간 : 연중
- 장소 : 광주천 도심 구간
- 내용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의 지속사업, 광주천을 매월 1차례 이상 조사 기록함.

2) 도심하천 자연도와 오염원 조사

- 일자 : 6월 ~ 8월
- 장소 : 풍영정천, 서방천, 증심사천, 수곡천, 소태천, 황룡강 일부 구간
- 내용 : 자연도 평가를 위한 하천조사. 수변환경, 수질, 수생 생물, 사회모니터링 부분을 평가. 오염원 조사하여 기록

2. 광주천 등 하천 사진 기록 및 사진전 개최

- 일시 : 사진전 _ 11월 8일, 12월 3일
- 장소 : 광주천 광주대교 일대, 신안 비치호텔(영산상 한마당 행사장)

- 내용 : 모래톱 등 회원 참여 사진전, 광주천의 새, 식물 등 생물종 사진 전시

3. 광주천 생태문화 학교, 정화 활동

1) 동산초 광주천 체험학교

- 일시 : 5월 23일(금) 오전 9시 ~ 12시
- 장소 : 광주천 원지교 일대
- 내용 : 광주천 유래, 도심하천의 기능과 역할, 물고기 및 수서곤충, 수생식물 관찰, 자연놀이, 발표
- 강사 : 광주천 지킴이 회원 등
- 참여 : 동산초 6학년 100여명

2) 광주천 답사 및 정화활동

- 일시 : 10월 13일(월) 13시 ~ 17시
- 장소 : 광주천 천교 일대
- 내용 : 정화활동, 광주천 도보답사
- 참여 : 제일고등학교 20여명, 대학생 10여명 참여

4. 광주천 문화제

- 일시 : 11월 8일(토) 10시 ~ 17시
- 장소 : 광주천 광주대교 일대
- 내용 : 기념식, 문화행사, 물고기 책갈피 만들기, 광주천 답사 및 정화활동, 수원중 물 GO氣 작품전시 등
- 참여 : 답사 _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 120여명을 비롯한 500여명 참여
- 주최 : 푸른광주21협의회, 환경공단,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공동주최

5. 하천지킴이 대상 하천교육

- 기간 : 2월 ~ 7월
- 장소 :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소태천 등
- 내용 : 하천과 새,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이해
- 참여 : 모래톱 등 하천지킴이, 시민 20여명(매) 참여

6. 푸른광주21협의회 실천사업 및 특화 사업 분과 참여

- 연중 : 광주천 문화제, 조사활동, 포럼, 교육 등 기획 및 참여

□ 사업평가

- 하천 조사를 통해, 지역 하천 현황 자료 구축
-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한 개선 안 모색(오염원 파악 및 개선모색)
: 각 하천의 특성, 환경에 따른 보전 활동 방향
- 풀뿌리 하천지킴이 활동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4대강사업 후속 대응 · 영산강 및 지천 살리기]

□ 사업목적

- 4대강사업으로 변화, 악화된 영산강 모니터링과 대안 모색
-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및 책임자 심판 촉구
- 영산강 재자연화 공론화
- 하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영산강 및 지천을 살리는 방안 강구

□ 사업개요

- 4대강사업으로 변화된 영산강에 대한 평가, 영산강 회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감
- 전문가 및 지역 단체들과 함께 4대강사업 이후 발생한 녹조 및 수질악화, 홍수피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습지문제 등을 지속 조사하여 대안 모색
-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전국단위와 연대하여 추진함
- 영산강을 살리는 방안과 실현을 지역 주민, 지역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추진.
-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천답사와 정찰활동, 우리강 보물찾기 프로그램, 생물종 보호를 위한 조사 활동 전개

□ 사업내용

1.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응

- 1) 기간 : 연중
- 2) 내용 : 나주시 다시 죽산보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 관련, 영농 피해 대응. 주민간담회, 지역단체와 연대.

2. 영산강 조사사업(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변화와 현황에 대한 조사)

- 1) 기간 : 6월 - 8월
- 2) 개요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변화와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수행
 - 보 안정성 문제, 수질, 조류(藻類) 번식, 지하수위 상승과 이에 따른 부작용 역행침식, 호안 침식, 보호공 유실 지형 변화에 따른 현황 조사,
 -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촉구 활동 이어감
 - ①수질 및 생태현황(녹조, 큰빛이끼벌레 등) ②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영향(농지 침수 등) ③ 지형변화- 역행침식, 보호공 상황 ④ 토적 및 침식 상태 ⑤저질토 조사 ⑦ 정부 등의 자료 확보
- 3)참여 전문가 : 박창근, 박재현, 정민걸, 이현정, 이성기, 박철용, 전승수 교수 등

3. 4대강사업과 관련한 연대 및 성명 발표

- 1/13 '두물머리' 영화 시사회 (광주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건 문학관)
- 6/26 영산강 큰빛이끼벌레 출현 관련 성명
- 7/11 수공 사장 발언 관련 '녹조, 큰빛이끼벌레 창궐은 4대강사업 때문이다' 성명
- 7/23 4대강사업 찬동인사 우기중 전남 부지사 내정 철회 촉구 성명
- 12/24 4대강사업 조사 평가위원회 발표에 대한 성명

4. 생물종 보호운동 - 지식강 귀이빨대칭이(멸종위기종 2급), 호사비오리(천연기념물) 등

- 1) 기간 : 2월 ~ 6월
- 2) 장소 : 지식강 지식교 일대
- 3) 내용 : 귀이빨대칭이(멸종위기종 2급), 호사비오리(천연기념물)이 지식강 중하류에 서식 확인. 영산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에 보호 방안 촉구. 귀이빨대칭이의 경우 전남에서 최초 서식 확인 됨. 하천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한 훼손 우려. 이에 대한 대책 촉구함

5. 우리강 보물 찾기 프로그램 및 수질보전 활동

- 1) 취지 :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하천과 자연성이 살아 있는 공간 찾기 및 생물종 가치 알리기, 하천보전 지혜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보전, 우수경관 홍보 및 오염하천 정화활동 등으로 하천환경 개선 등

2)내용

①어린이 청소년 우리강 배우기 및 하천 보물 찾기, 정화활동

- 기간 : 6월 ~ 11월
- 장소 : 지식강, 광주천, 영산강, 담양습지 등
- 내용 : 하천 관찰, 캠프, 문화와 연계한 답사, 정화 활동,
- 참여 : 11회 진행. 초, 중, 고, 대학생 참여 400여명 참여

②하천 교육

- 기간 : 3월 ~ 8월
-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광주천, 소태천 등
- 내용 :

진행일자	내용	강사
3월 7일	하천의 새	성하철(전남대학교수)
4월 8일	하천과 습지의 파충류, 양서류	라남용(전남대학교수)
8월 15일	영산강과 문화 (영산강, 나주국립박물관 답사)	문화해설사, 학예사

- 참여 : 하천지킴이 및 일반 시민 20~ 30여명

③ 물의 날 행사

- 일자 : 3월 22일(토)
- 장소 : 영산강 일대(극락교 ~ 서창교)
- 내용 : 영산강일대(극락교~ 서창교) 정화활동, 답사
- 참여 : 대학생, 일반인 120여명,

④ 상수원(주암호)수질보전을 위한 불법경작 중단캠페인

- 내용 : 환경청, 환경연합, 주암호 보전협의회 협약. 불법경작 금지 캠페인 등

⑤ 하천관찰노트 제작

- 내용 : 하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관찰과 기록을 하기 위한 교재로의 기능, 하천 정화활동, 답사 참여자 대상 제공 및 활용 목적

6.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사업

1) 제 9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일시 : 7월 28일 ~ 8월 1일

- 장소 : 목포, 영산강, 광주천 일대
- 내용 : 청소년들과 함께 영산강 유역의 주요 시·군을 탐사. 영산강의 수생태환경 및 동식물 조사, 향토문화, 역사, 경제 등을 탐방하여 영산강의 소중함을 알리며 강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참여 : 200여 중, 고등학생 참여

2) 제 6회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 일시 : 12월 3일
- 장소 : 목포 신안비치호텔
- 내용 : 영산강 유역의 시군단위의 환경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4년, 1년동안 진행했던 강살리기 운동을 총화하고 공유 목적. 하천 사진 전시회 참여 등

□ 사업평가

- 4대강사업 대응과 관련하여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 계와 연대하며 조사 활동을 이어감. 상대적으로 연대축이 약해졌음.
- 4대강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 큰빛이끼벌레와 같은 시각적 문제가 드러날 때 외에는 4대강사업 이슈가 부각되지 못함.
- 정부 차원의 객관적 검증과 평가, 책임자 심판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는 미비함. 후속 대응 요구됨.
- 우리 지역의 주요 하천 답사 및 정화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하천 해설, 체험, 놀이, 정화 활동 그리고 지역별 특징과 현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쉽게 이해되고 체감 하는 기회가 됨.
-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지속화 필요함.

자원순환사회 만들기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사업목적

- 주민주도형 지역맞춤형 자원순환 마을 실천사례 만들기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마을내 불법 투기 문제해결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위한 실천 사례 만들기
- 주택가, 원룸촌에서의 재활용 분리배출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 시범운영

□ 사업개요

- 우리동네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 등 기초조사
- 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 주민간담회
- 분리배출 교육 및 자원순환 교육
- 우리동네 자원순환파티,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거리 만들기

□ 사업내용

1.우리동네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 등 기초조사

- ①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 지역 조사 2회
 - 기간 : 4월 23일 ~ 25일
 - 내용 : 남구 전체 및 동네 쓰레기배출 실태(백운동, 주월동 일대)
- ② 무단투기 지역 대상 실태조사
 - 기간 : 7월 3일 ~ 5일
 - 내용 : 남구 일대(백운, 주월, 진월동 중심)
- ③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인식 기초조사
 - 기간 : 7월 2일 ~ 3일
 - 내용 : 남구 백운동 주민 20여명 대상
- ④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 기간 : 8월 6일 ~ 9월 30일(자문기간 포함)

- 내용 : 남구 등 광주 시민 200여명 대상, 대면조사
- ⑤ 분리배출, 쓰레기 배출 문제지역 대상 조사
 - 기간 : 8월 6일 ~ 9월 30일(자문기가 포함)
 - 내용 : 남구 등 광주 시민 200여명 대상, 대면조사
- ⑥ 재활용품 배출 및 쓰레기 배출 조사(사후조사)
 - 기간 : 10월 8일 ~ 31일
 - 내용 : 남구 일대(1차 2차 조사 지역)

2. 주민간담회

- ① 마을단위 사업 추진 방안 협의(주민 참여 방안)
 - 일시 : 7월 2일 11:00
 - 장소 : 남구청 마을커뮤니티 센터 사무실
 - 내용 : 마을단위 사업 추진 방안(지역 및 주민참여방안) 협의
 - 참석 : 남구 마을 커뮤니티센터 민문기 사무국장의 1인,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외 1인, 남구 환구름봉사단 이재금 회장 외 1인(통장)
- ② 주민회의
 - 일시 : 7월 4일 19:00
 - 장소 : 백운동 흥진식당
 - 내용 : 마을 단위 사업 추진 방안 협의(지역 협의), 교육 계획안에 대한 협의, 홍보 방안 협의, 교육 장소 협조 협의 등
 - 참석 : 백운동 통반장 20여명, 백운2동 동장 및 사무장,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등
- ③ 교육평가 주민간담회
 - 일시 : 8월 4일 15:00
 - 장소 : 서남교회 비전센터 교육실(이레방)
 - 참석 : 주민 20여명 (교육 참여자 포함)
 - 내용 : 쓰레기 배출 실태 조사 협의, 주민 인식조사 협의

3. 자원순환 주민교육

- 사업목적 : 자원순환에 대한 체험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이해 및 실천 유도
- 진행내용

일시	내용	장소	비고
7/14(월) 오후 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천연화장품만들기- 썬크림 	서남교회 비전센터 교육실	
7/21(월) 오후 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용기 활용 꽃화분 만들기 	서남교회 비전센터 교육실	빈패트병 (1.8리터) 준비
7/28(월) 오후 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옷으로 쿠션만들기 	서남교회 비전센터 교육실	실,바늘 안 입는 남방
8/4(월) 오후 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문제와 해결방안- 시민활동 중심으로 •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 간담회 	백운동 일대	PT, 간담회
9/1(월) 오후 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제 제습기 만들기(빈용기활용) • 쓰레기 문제 인식조사- 설문 	서남교회 비전센터 교육실	음료 용기
9/15(월) 오후 1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구 재활용선별센터 견학 	남구 재활용선별센터	<현장견학>

- 참여 대상 : 마을주민 20~30명 매 참석
- 교육참여자 이후 활동 : 설문조사 실시, 폐기물배출 문제지역 개선활동, 마을꾸미기 참여 등

4. 자원순환 초등 교육- 주민 토론회

- 일시 : 9월 25일(금)오전 9시 ~12시
- 장소 : 백운초등학교
- 대상 : 백운초등학교 5학년 4개반
- 내용 : -자원순환 이해(쓰레기 문제와 해결방안은)
 - 헌용기와 헌옷으로 반건고리 만들기 체험
- 강사 : 박태규, 김희련 외 보조강사 2인

5. 자원순환 거리 만들기(거리개선) 활동

- 일시 : 10월 18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백운초등학교 앞
- 내용 : 벽화그리기, 자원순환 화단 배치 및 홍보안내판 부착

6. 자원순환(재활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① 쓰레기 투기지역 홍보판 부착
 - 내용 : 쓰레기 분비배출 철저, 무단투기 금지 내용
 - 방법 :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화단 배치와 함께 홍보안내판 부착, 이후 사후 확인, 일부 지역 주민 관리
- ② 재활용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내용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주요 주의 사항 안내문 1,000부

□사업평가

○종합평가

- 주민교육 연속 진행 및 현장 체험형 교육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 참여 동기 부여하고 및 실천으로 이끌어냄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 자원순환장터 추진, 쓰레기투기 지역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을 유도학 위해, 벽화꾸미기, 화단조성 등을 시행함으로써, 개선 효과를 얻음
- 조사 및 사후 개선활동 시행 일부 개선 효과를 얻음
- 민관 협의 기초 마련(상시적 협의 가능)

○개선방향

- 사업추진기간이 1년 몇 개월으로, 단기 사업으로 인한 연속성 확산성 확보가 필요함.
- 주민 동의와 이해, 민관 협의 구성, 활동내용을 협의, 활동과이후 평가 개선 등의 추진하는 과정이 짧게 이루어짐
- 지속성을 갖고, 이후에 대한 평가 환류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사업지역 범위를 특화 해서 추진 하는 방안도 고려(원룸촌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파트 단지, 골목 등) / 시범마을 등 형태

[빈용기 조사]

□ 사업목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에게는 선별 및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비대상품(결빙, 잡병, 기타병)이 포함되어 반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소매업자들의 선별·반환 실태를 확인을 통한 제조사의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의 적정 지급여부를 점검 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조사지역 및 조사규모를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 후 해당 물류센터 통보
- 지역별 조사책임자 선정·교육 후 직접조사 실시
- 우리 연합은 광주·전남지역을 담당

□ 사업내용

1. 비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비대상품 혼입조사
 - 기간 :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총 3회 조사 실시
 - 장소 : 조사대상 제조사 물류센터
 - 내용 :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보해소주 등 우리 지역의 주요 제조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상반기 약 60여 단위, 하반기 약100여 단위 전수조사 실시.

□ 사업평가

1. 종합평가
 - 자원순환체계 감시라는 측면에서 조사 역량 축적.
 - 전국적 동시다발적 조사사업에 임함에 따라 연대강화
 - 비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극복
2. 개선 및 향후 방향
 - 실효성있는 비용기 보증금제의 조사, 교육을 위한 논의 필요.



생태 도시 만들기

[생태도시 만들기 - 녹지 공원]

□ 사업목적

- 생태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해 일상의 녹지공간 보전 및 확대
- 미조성공원의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연속활동,
- 도시공간의 친환경적 활용 및 인간 존중형 도시공간 조성
- 생태문화공동체로써의 푸른길의 가치 확대

□ 사업개요

- 도시공원 및 공공공간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미조성공원 및 중앙공원에 대한 조성요구, 푸른길공원 가치와 사례 확산, 친환경적 도시공간 구성 및 가치 확산

□ 사업내용

1. 도시숲, 사람, 마을을 잇는 푸른길 ※(사)푸른길 협력 사업
 - 1) 도시숲을 잇는 푸른길
 - 시민참여의 푸른길공원 관리 실현
 - 대남로(광주천변~백운광장 1.7km)푸른길공원에 대한 관리활동 전개
 - 2) 사람을 잇는 푸른길
 - 푸른길 문화네트워크 및 푸른길공동체 구현을 위한 활동 전개
 - 푸른길 신문(가), 푸른길문화장터 등 전개
 - 푸른길기차를 활용한 푸른길의 생태문화거점 공간 활성화
 - 3) 마을을 잇는 푸른길
 - 폐선부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해 정부차원의 폐선부지 활용 지원 제도 마련
 - 푸른길주변 재생을 통해 광주의 생태적 문화적 재생을 이끔.
 - 4)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한 푸른길 훼손에 대한 대응
 - ① ‘저심도 도시철도 2호선을 점검한다’ 정책 토론회 개최
 - 일시 : 4월 29일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의회 대회의실
- 주제 : 저심도 도시철도 2호선을 점검한다
- 발표 : ●저심도 도시철도 2호선 현황과 진행사항_송영한(도시철도 건설본부 본부장)
●도시철도 2호선에 의한 푸른길 훼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_유우상 전남대 교수
- 토론 :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노경수(광주대 교수), 조동범(전남대 교수), 박상은(환경연합 팀장), 전주연(광주시 의원)
- 사회 : 김보현(광주시 의원)

②성명

- '도시숲길 푸른길을 훼손하는 도시철도2호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한다' 3/28
-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중간보고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12/24

2. 미조성공원의 공원화

1)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공원 지정활동

- 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심공원 해지가 우려되는 바, 미집행공원에 대한 조성 및 대안 촉구 활동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완료이후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의 지속적인 행정의 노력 촉구

2)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공원화사업 유도

: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공원화요구로 공원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방치되고 있는 공원의 공원조성 활동

- ① '옛 국군광주병원과 옛 기무부대의 공원화를 위한 광주시와 국방부의 양여 교환 협약 환영' 입장발표 2/25

② 옛 기무대, 국군통합병원 공원화 토론회

- 일시/ 장소 : 4월 10일 오후3시 /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
- 주제 : '옛 기무부대, 국군광주병원 공원화,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주제발표 :
 - '숲, 공원, 도시재생, 시민을 잇는 전략의 필요성'_조동범 전남대 교수,
 - '어린이청소년 꿈의 공원' _ 하정호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연구원
- 사회 : 강은미 광주시 의원

3. 무등산 보전 및 복원 운동

- 무등산국립공원 의제길 확장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6/11
- <토론회>무등산 정상 복원, 어디까지 왔나_군부대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1/12

4.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 [성명서]이낙연 의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를 중단하라! 2/24
- 지리산국립공원에 영 호남 케이블카 도입을 주장한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2/26

[대기질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대기환경 실태 파악 및 취약지구 개선안 모색
-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보호를 위한 시민적 실천 확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안 모색

□ 사업개요

- 기후대기 개선을 위한 시민협력단 구성 및 분과 운영
- 시민참여 활동(모니터링, 캠페인, 간담회 등)
- 타지역 사례, 자문을 통한 평가. 활동안 모색

□ 사업내용

1. 대기질 실태 모니터링

- 추진기간 : 7월 ~8월, 9월~10월
- 장 소 : 광주시 5개구 관내 100곳(교차로, 학교앞, 공단, 주택가 등)
- 참여인원 : 20명
- 추진내용
 - 학교앞, 주요 교차로, 주택가 등 100곳(5개구*20곳*2회) NO2조사
 - 조사 워크숍 및 평가

2. 미세먼지 및 대기질 시민 인식 조사

- 추진기간 : 8월 ~ 10월
- 장 소 : 광주시 관내

- 참여인원 : 200여명
- 추진내용
 -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 정도, 개선을 위한 실천 의지 등을 파악하기 한 조사, 시민의 권 수렴을 위해 200명 대상 대기관련 인식 조사 실시
 - 설문 자문 및 타지역 조사 사례 참고, 대면 조사 실시
 - 평가 및 분석

3. 기후대기 개선 시민실천 캠페인

- 추진기간 : 8월 22일, 9월22일~27일, 11월 8일
- 장 소 : 두암동 라인동산아파트 앞, 수완중학교, 금남로, 공원 일대
- 참여인원 : 200여명 (캠페인 참여 연인원 70여명)
- 추진내용
 - 대기질 관련 홍보물 배포(8/22, 두암동 라인동산아파트 앞)
 -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9/22, 금남로 일대)
 -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9/26, 수완중학교)
 - 미세먼지 대응 홍보물 배포 (11/8, 광주천변, 광주공원 앞)

5. 기타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활동 방안 토론회 12/26
- 청정학교 만들기 캠페인
- 초미세먼지 대책 촉구 성명 2/28
- 경유택시 도입관련 입장 발표 12/17

□ 사업평가

- 주요 거점 대기질 현황, 대기질 관련 시민인식 조사를 통해 개선안 모색
- 초미세먼지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대기질 대책은 교통문제, 기후문제 등과 연계된 현안임, 지소가능한 도시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환경인권도시포럼]

□ 사업목적

- 도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 소비까지의 총체적 과정에서의 환경과 인권 문제고찰
- 에너지지 다소비 구조인 도시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대안을 모색

□ 사업개요

-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재회의_ 환경과 인권
- 환경과 인권 워크숍
- 아시아 에너지 정의를 위한 연대 모색 워크숍

□ 사업내용

1. 주재회의 - 환경과 인권

- 일시: 2014. 5. 17(토) 13:30~16:30
-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
- 주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정의
- 참여인원 : 총 200 명 (내국인150명, 외국인 50명)
- 내용 : 환경과 인권, 에너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좌장)이인화 (공동의장,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주제발표
 1. '대혼란의 시대, 대응력 구축 방안'
 - _ 스테판 플로츠만 (독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프로그램국장)
 2.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 조명래 (한국. 단국대학교 교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3. '아시아에서의 에너지 정의와 인권'
 - 헤만타 위타나케(스리랑카. 환경정의센터 사무총장, 지구의 벗 아태 의장)
 - 지정토론
 - 조항문(서울시정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최수영(부산탈핵연대 집행위원장,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 조환익(여수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2. 환경과 인권 워크숍

- 일시: 2014년 5월 2일(금) 오후 4시 ~ 6시
- 장소: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 목적: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권에 대하여 각 분야 성원들이 생각하는 의견과 방향을 듣는다.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혹은 관련 제도에 있어 생태와 인권 감수성의 토대 위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준비
- 주제: 환경정의와 인권에 대하여
- 대상: 시민, 학생, 시민단체 활동가 및 회원
- 참여인원 : 20여명
- 추진내용
 - 기조발표 : ‘도시, 인권, 환경 그리고 정의’ _ 공진성(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 : 조은별 (대학생, 녹색당 당원)/ 오하라츠나키 (반핵 운동가)/ 최완옥 (광주 장애인권익문제 연구소 소장)/ 애나 트레이닌 (담양한빛고등학교 교사)/ 지준명(기후포럼 위원)/ 박병섭(기후천사 모임) 등 회원 및 대학생
 - 사회 : 최홍엽(집행위원,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3. 지속가능한 사회와 아시아 에너지 정의

- 일시: 2014년 5월 15일 오후 10시 ~11
- 장소: 별교여고 강당 및 전남 일대
- 주제: 지속가능한 사회와 아시아 에너지 정의
- 강연 : 헤만타 위타나제,
- 대상: 별교여고 학생 60여명 / 전남 활동가

4. 5.18 기념행사 참여 및 5.18 국립공원 등 사적지 답사

- 일시: 2014년 5월 18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 장소: 5.18 국립묘역, 구묘역, 5.18기념 재단 등
- 목적: 주체회의 국외 및 국내 참여자의 5.18민중항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중항쟁 34기 기념 등

□ 사업평가

• 종합평가

- 에너지 문제를 환경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회가 됨
- 단일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포럼 개최 및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포럼에 구축될 수 있도록 시도함.
- 학생, 일반 시민, 광주 거주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았음.

• 개선방향

-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NGO의 참여와 토론이 있었으나, 행정기관의 참여는 미비하였음. 환경보호와 인권실현이라는 궁극적 취지를 위해 거버넌스 혹은 연대가 필요함. 행정기관의 참여, 동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주관단체의 동참 확대 필요.
- 토론 결과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향후 활동에 반영 되는 등 후속 연계 결과(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환경교육

□ 사업목적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간의 연계활성화방안 모색 및 제도화기반 마련
- 자연나들이와 캠프 등 어린이 연속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다양화
-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냄

□ 사업개요

- 자원순환교실과 하천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간의 연계방안과 발전가능성을 논의함. 자연나들이와 캠프 등 어린이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또한 아시아 지역교류진의 참여 등 지역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등을 진행함.

□ 사업내용

1. 자원순환교육 추진

1)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차시	주제	분야	내용	유형
1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	지구가 아파요!! “지구수비대친구들의 소풍가는 날” 태양열로 메추리알 삶아먹어요	이론 및 구연동화 체험
2	종이를 아껴 쓰면 나무가 웃어요.	자원순환-종이	SOS! 숲을 구하라! -신문지로 숨은 글자 찾기 - 신문지를 먹는 물고기 만들기 - 남은 신문지로 연료 만들기	이론 체험
3			우유팩과 꽃잎을 이용한 책갈피&편지지 만들기 -저번시간에 만든 신문연료로 메추리알 삶아먹기	야외체험
4	T셔츠의 여행	자원순환-헌옷	우리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헌 T셔츠를 이용해서 주머니 만들기	이론 / 체험

차시	주제	분야	내용	유형
5	너무 많은 일회용품	자원순환-일회용품	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 플라스틱 병으로 화분 만들기	이론 야외체험
6		자원순환-일회용품	빈병으로 어항 만들기	체험
7	우리가사는 지구	전체	지구가 멍들어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범인 찾기”	이론 및 PPT 구연동화
			태양빛으로 메추리알 삶아먹어요	
8	T셔츠의 여행	자원순환-헌옷	헌옷으로 핸드폰고리 만들기	체험
9	너무 많은 일회용품	자원순환-일회용품	페트병으로 드라이 거치대 만들기	이론 및 체험
10	기름과 물은 안 친해	자원순환-기름	사용하고 남은 기름은 어떻게 될까? -비누 만들기	이론 및 체험
11	종이를 아껴 쓰면 나무가 웃어요.	자원순환-종이	우유팩으로 수납장 만들기	이론
12	자원순환 정리	도전! 자원순환 퀴즈	도전 자원순환 골든벨!! 지금까지 배운 자원순환공부를 퀴즈를 통해 다시금 복습하고 문제 맞추면 샌드위치 재료획득!!	체험

2) 추진 내용

(1) 화정남초등학교

- 일시: 4월~7월 중 매월 2회(둘째, 넷째 목요일)
- 대상: 15여명, 총 5차시 진행
- 내용: 우리는 꼬마지구지킴이, 종이를 아껴 쓰면 나무가 웃어요, T셔츠의 여행, 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 등을 진행.

(2) 백운초등학교

- 일시 : 9월~11월 중 매월 2~3회
- 대상 : 2학년, 5학년 160여명, 총 8차시 교육진행
- 내용 : 자원순환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총 8회에 걸쳐 진행함.

(3) 어린이 문화콘텐츠 지역 교류전 참여

- 일시 : 10월 30일(목)~11월 1일(토), 11월 20일(목), 12월 23일(화)
- 장소 : 광주교육대학교 풍향문화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주관 : 아시아문화개발원 어린이문화원사업팀
- 내용 : 환경연합 참여 프로그램_ 자원순화교실
(환경운동연합 포함 총 24개 단체 기관 참여)

2. 기후변화와 에너지

1) 광주 수완중학교 에너지교육

- 일시 : 3월~11월 매월2회
- 대상 : 수완중학교 1학년 72명
- 내용 :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봄. 실내, 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이론과 답사를 병행함.
- 세부 프로그램 :

차시	기간	주제와 활동내용	장소
1	3월	오리엔테이션	수완중학교
2	4월	기후변화와 에너지 녹색에너지체험관 견학	에너지 관리공단
3	5월	기후변화와 숲 생태해설과 함께하는 푸른길 걷기	푸른길 공원
4	6~7월	태양에너지로 놀기 솔라카 경주대회(태양광 체험)	수완중학교
5	9월	에너지 캠페인 차 없는 날 기념 캠페인	수완중학교
6	10~11월	지구를 위한 나의다짐 에너지 프로젝트 정리 및 발표회 준비	수완중학교
7	11월	결과발표회 체험부스 운영	수완중학교

2) 전남 ESD(지속가능발전) 교육

- 기간 : 2014년 12월~2015년 2월
- 대상 : 전라남도 소재 초등 및 중등 32개교
- 내용 : 핵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하는 탈핵교육

3. 하천생태체험 교육

1) 수완중학교

- 일자 : 3월~11월 매월 1회
- 대상 : 수완중학교 1학년 35명
- 내용 : '물GO氣' 를 주제로 광주천의 물고기를 통해 도심 하천생태계 이해, 물길과 자연에 대한 예의를 배움.
- 세부 프로그램

회차	기간	주제와 활동내용	장소
1	3월	오리엔테이션_광주천 물GO氣 소개, 미션과 주제 정하기	수완중학교
2	4월	물길과 물고기 • 광주천 둘러보기, 물고기 서식환경 조사, 수질관찰 • 물고기 이름표 만들기, 자연도 생태조사	광주시청 광주천둔치
3	5월	물풀과 수생식물 • 물풀, 수생식물 채집 관찰 생태세밀화 • 물고기와의 관계, 자연놀이	광천2교 두물머리
4	6월	물속생물과 수서곤충 • 수서곤충 채집 관찰 세밀화 • 물고기 먹이, 광주천자연놀이	원지교 장수교
5	9월	지천과 계곡생태 • 증심사 계곡 물속생물 채집 및 관찰 • 계곡 생태계, 물놀이	증심사천
7	11월	물고기 • 광주천에 살아요. 물길 홍보판 만들기	수완중학교
8	11월	생태체험프로젝트발표회	

2) 동산초등학교

- 일자 : 5월 23일(금)
- 대상 : 동산초등학교 6학년 80명
- 내용 : 도심하천 생태계 이해, 하천 생태계보전활동 등
- 세부프로그램

구분	주제와 활동내용	장소
오리엔테이션	-인사, 광주천 소개, 도심하천의 기능과 역할, -체험학습 전체 일정 소개(물고기, 물풀, 물새 생태계) <함께 생각해봅시다.> ○ 사람들의 생활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환경오염은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구역	-하천과 물고기 채집 및 관찰 (수질오염에 따른 생태변화 관찰) -우수와 하수이야기 (광주천오염원-비점오염원)	장수교 주변
2구역	-하천과 둔치식물이야기 (자연형 하천, 자연 생태계이해) -하천과 동물(수달배설물, 애기똥풀, 고마리 등)	방학교 설월교
3구역	-하천과 수생식물, 물의 정수(습지의 기능과 역할 이해) -물풀, 물새, 물고기 오감 생태놀이	생태관찰데크
4구역	-하천과 수서곤충(수질오염에 따른 생태변화 관찰) -광주천 물속생물의 이해	자갈모래톱

4. 어린이 자연체험 프로그램

1) 어린이 자연나들이

• 프로그램

일시	제목	장소
4/12(토)	“도산생태마을로 떠나요!”	순천 도정리 도산생태마을
5/24(토)	“곡성으로 생태탐방 떠나자!”	곡성 생태체험관
6/28(토)	“황룡강 생태하천 탐방하자.”	황룡강, 월봉서원
9/27(토)	“자연에서 즐거운 불편을 느껴보자.”	영광 용암마을, 영백염전
11/1(토)	“우리 하천의 보물을 그려보자!”	지석강, 무양서원

- 내용 : 생태탐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황룡강·지석강 등 광주천 답사가 함께 이루어짐. 염전체험, 미술체험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다양성 부여하였음. 또한 전년도에 비해 모집이 수월하였으며, 한번 참여한 어린이가 꾸준히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나 긍정적임.

2) 어린이 겨울캠프 “태양의 파워로 사는 오지마을 탐험 ”

- 일시 : 1월 24일(금)~25일(토), 1박2일

- 장소 : 전북 완주군 덕암마을
- 내용 : 태양에너지로 살아가는 오지마을에서 신나게 뛰어 놀며,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야외 전통놀이, 장작불로로 고구마 구워먹기, 자전거페달 발전기로 팝콘 만들기, 에너지 연극공연, 에너지공부, 친환경 농산물로 음식만들기와 시식 등. 총 33명 참여

3) 어린이 여름캠프 “떠나자! 하천보물 찾아~ 생태마을 찾아~”

- 일시 : 8월 8일(금)~9일(토), 1박2일
- 장소 : 화순 지석강, 도암면 봉화마을
- 내용 :
 -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놀이로 아이들과 1박2일.
 - 지석강 생태관찰을 통해 하천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 갖는데 목적
 - 고인돌 유적지탐방, 숲해설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숲길체험, 대나무 물총게임, 물놀이, 다슬기잡기 등 하천 및 자연놀이 진행. (31명)

□ 사업평가

1. 평가 내용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 지속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개발됨.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초·중고 학교환경교육과 연계 교육을 진행함.
- 아시아 지역교류전에서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하는 등 네트워크 확산이 긍정적임.
- 특히 자원순환교실 프로그램의 경우, 매뉴얼이 정리되었고 교육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재교육 요청이 계속됨.
-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풀 구축 등이 과제임 .

2. 향후 방안

- 어린이프로그램의 꾸준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
- 자원순환교실, 에너지교육 등 연속적인 교육사업을 지속하고 발전
- 생태적 가치관 형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식 고취
- 지역교류전 등 환경교육의 교류를 통해 더 다양하고 전문화 된 프로그램 구축
- 강사양성교육 등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진행

지역 및 전국연대

[전국환경운동연합]

1. 대표자회의 _ 년 4회 개최 (2/22, 9/27, 12/6 참석)
2. 전국국처장단회의 _ 격월 개최 (5/13, 6/22, 8/19, 9/26 참석)
3. 광주, 전남 사무국회의 _ 분기 필요시, 4/4
4. 광주전남 임원활동가 수련회 _ 4/4~ 5 신안 압해
5. 전국환경연합 임원활동가 수련회 / 회원대회 _ 6/21~22 경주 보문단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회원단체 참여 및 활동

- 광주지역 23개 시민운동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로서 광주시의 예산 감시 및 견제, 정책 제안 및 시정 평가, 현안 대응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함.
- 매월 10만원씩 회비 납부 및 사무처 활동 지원
-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 최지현 사무처장 참여
-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 시국회의, 세월호 참사 대응, 공문서 위조 대응 등 시국 및 현안 대응 연대활동.
- 민선 5기 시정평가, 지방선거 시민사회 역할 모색 활동 참여
- 5.18기념 행사 등 참여

2. 시민 권익 증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운동

- 6.4 지방선거 광주연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행사, 4.16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 5.18 기념행사,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동구 화상경륜장 유치 지지 활동 등 연대

[푸른광주 21협의회]

- 4차의제(2012년 ~ 2016년) 실천사업 참여_ 교육, 하천, 기후대기 분과
- 운영위원회 위원, 광주천 특화사업 위원 참여
- 지구의날 행사, 승용차 없는 날 행사, 푸른 광주의 날, 광주천 시민문화제 등 환경 기념 행사 연대 활동 등 참여

2014 재정결산(안)

일반회계 결산(안)

[2014년 일반회계 결산]

수입부			지출부		
항목	합계		항목	합계	
이월금	40,614,384		차기이월금	34,087,587	
회비	자동이체	146,173,000	공과금	전화통신비	1,435,530
	지로납부	2,496,000		건물관리비	4,780,110
	직접납부	773,000		소모품 및 수선비	1,329,390
	평생회원	3,000,000	비품구입	식사비	1,942,800
	특별(임원)회비	3,890,000		퇴직적립금	7,167,100
	소계	156,332,000		경조사	100,000
후원금	회보광고	0	보험료	보험료	6,273,235
	후원/기부금	56,651,100		인건비	급여
소계	56,651,000			상여금	11,483,520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59,861,500	경상비 소계 129,877,485		
	교육 참가비	6,280,000	중점사업	환경교육	5,492,700
	소계	66,141,500		기후보호운동	41,604,794
기타	자료대여/판매	6,800		생태도시 만들기	18,751,479
	이자수익	130,786		영산강, 광주천 지키기	16,784,980
	차입금	3,144,250	소계	82,633,953	
	기타수익	853,675	회원사업	소식지, 월간지	16,917,350
	고용지원금	893,320		홍보물제작, 발송	5,004,760
소계	5,028,831	회원조직/참여사업		3,104,737	
사업비				회원모임 지원	1,851,500
				웹 운영	2,308,000
			소계	29,186,347	
			조직특별사업	정기총회 등 회의	981,320
				후원의 밤	3,120,750
중앙/지역연대	5,532,680				
소계	9,634,750				
사업비 소계	121,455,050	기타	차입금이자 및 상환	6,144,250	
기타				장기발전기금	30,091,773
				기타지출	3,110,670
				기타 소계	39,347,693
수입	284,153,431	지출	290,680,228		
수입계	324,767,815	지출계	324,767,815		

■ 현금 및 예금 명세

(단위: 원)

예금종류	은행	계좌번호	잔액
보통	광주	010-107-302497	2,531,518
보통	광주	053-107-306601	26,949,641
보통	광주	001-107-385913	500,024
보통	광주	001-107-385922	188
보통	광주	053-107-309122	1,498,439
보통	광주	001-107-385889	3,530
보통	광주	055-107-002005	46,350
보통	광주	003-107-315495	1,425
보통	광주	001-107-385898	585
보통	광주	003-107-315501	7,491
보통	광주	053-107-313545	2,133
보통	광주	003-107-318147	7,226
보통	광주	003-107-318800	0
보통	농협	617-01-145946	416,130
보통	농협	301-0094-7367-21	836
보통	농협	616-01-127261	52
보통	신협	131-004-104341	2,015,232
현금	현금		106,787
일반회계 총계			34,087,587

■ 출자금 명세

(단위: 원)

은행	계좌번호	금액
신협	110-051-151293	10,074

■ 임대보증금 명세

(단위: 원)

임대인	기간	금액
복동신협	2003년 3월~(2년씩 연장)	50,000,000

특별회계 결산(안)

■ 특별회계 예금명세

(단위 : 원)

명칭	계좌	금액
퇴직 적립금	신협 172-028-023906	8,596,601
	신협 172-028-023951	14,101,304
	신협 172-028-405328	2,027,231
	신협 172-028-405342	978,246
	신협 172-028-272527	800,059
	신협 172-029-576500	97,200
장기발전기금	신협 150-312-084397	15,000,000
	신협 150-303-881284	5,062,203
	신협 150-283-267764	10,029,570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광주 003-107-312239	258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 003-107-312220	290,263
특별회계 합계		56,982,935

■ 퇴직금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32,308,122	차기이월금	26,600,641
퇴직금적립	7,163,200	퇴직금지급	13,423,568
이자수익	552,887	기타지출	0
소계	7,716,087	소계	13,423,568
수입	7,716,087	지출	13,423,568
수입계	40,024,209	지출계	40,024,209

■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재정

(단위 : 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102,216	차기이월금	258
분담금	0	영산강 현장조사	102,000
기부금	0	영산강사업 소송	0
결산이자	42	기자회견/자료	0
소계	42	소계	102,000
수입	42	지출	102,000
수입계	102,258	지출계	102,258

■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재정

(단위:원)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546,325	차기이월금	290,263	
분담금	800,000	운영	소모품/비품	0
후원금	100,000		출장/유류비	0
사업비	0		회의/식사비	0
참가비	251,500	사업	교육	750,000
결산이자	238		홍보	629,800
			정책	23,200
			조직	4,800
소계	1,151,738	소계	1,407,800	
수입	1,151,738	지출	1,407,800	
수입계	1,698,063	지출계	1,698,063	

[예-결산 실적비교]

수입부					지출부						
항목	예산	결산	실적	달성율	항목	예산	결산	실적	달성율		
이월금	40,614,384	40,614,384			차기이월금	0	34,087,587				
회비	자동이체	175,800,000	149,442,000	-26,358,000	85.0	경상비	공과금	6,000,000	6,215,640	215,640	103.6
	지로납부						2,400,000	1,329,390	-1,070,610	55.4	
	직접납부						3,000,000	1,104,820	-1,895,180	36.8	
	평생회원	2,000,000	3,000,000	1,000,000	150.0		후생복지	18,556,970	9,209,900	-9,347,070	49.6
	특별회비	4,860,000	3,890,000	-970,000	80.0		보육비	0	0	0	
	소계	182,660,000	156,332,000	-26,328,000	85.6		보험료	9,972,500	6,273,235	-3,699,265	62.9
후원금	회보광고	1,200,000	0	-1,200,000	0.0	인건비	145,629,600	105,744,500	-39,885,100	72.6	
	후원금/기부금	70,000,000	56,651,100	-13,348,900	80.9	소계	185,559,070	129,877,485	-55,681,585	70.0	
	소계	71,200,000	56,651,100	-14,548,900	79.6	사업비	중점,연속사업	150,000,000	82,633,953	-67,366,047	55.1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100,000,000	59,861,500	-40,138,500	59.9		회원사업	38,140,000	29,186,347	-8,953,653	76.5
	교육참가비	25,000,000	6,280,000	-18,720,000	25.1		조직사업	15,200,000	9,634,750	-5,565,250	63.4
	소계	125,000,000	66,141,500	-58,858,500	52.9		소계	203,340,000	121,455,050	-81,884,950	59.7
기타	자료대여/판매	525,616	6,800	-518,816	1.3	기타	장기발전기금	30,000,000	30,091,773	91,773	100.3
	이자수익	0	130,786	130,786			예비비	1,100,930	0	-1,100,930	
	차입금	0	3,144,250	3,144,250			차용금	0	6,144,250	6,144,250	
	기타수익	0	853,675	853,675			기타	0	3,111,670	3,111,670	
	고용지원금	0	893,320	893,320			소계	31,100,930	39,347,693	8,246,763	126.5
	소계	525,616	5,028,831	4,503,215	956.7						
수입	379,385,616	284,153,431	-95,232,185	74.9	지출	420,000,000	290,680,228	-129,319,772	69.2		
수입계	420,000,000	324,767,815	-95,232,185	77.3	지출계	420,000,000	324,767,815	-95,232,185	77.3		

[전년대비 증감률 비교]

수입부					지출부						
항목	2013	2014	증감	증감률	항목	2013	2014	증감	증감률		
이월금	37,041,448	40,614,384	3,572,936		차기이월금	40,614,384	34,087,587	-6,526,797			
회비	자동이체	150,618,000	146,173,000	-4,445,000	-3.0	경상비	공과금	5,796,890	6,215,640	418,750	7.2
	지로납부	3,510,000	2,496,000	-1,014,000	-28.9		소모품및수선비	2,060,390	1,329,390	-731,000	-35.5
	직접납부	610,000	773,000	163,000	26.7		비품구입	1,760,000	1,104,820	-655,180	-37.2
	평생회원	3,000,000	3,000,000	0	0.0		후생복지	12,845,150	9,209,900	-3,635,250	-28.3
	특별(임원)회비	3,870,000	3,890,000	20,000	0.5		보육비	1,000,000	0	-1,000,000	-100.0
	소계	161,608,000	156,332,000	-5,276,000	-3.3		보험료	4,008,390	6,273,235	2,264,845	56.5
후원금	회보광고	0	0	0	0	인건비	129,039,770	105,744,500	-23,295,270	-18.1	
	후원금 등 기부금	71,988,800	56,651,100	-15,337,700	-21.3	소계	156,510,590	129,877,485	-26,633,105	-17.0	
	소계	71,988,800	56,651,100	-15,337,700	-21.3	사업비	중점,연속사업	103,206,964	82,633,953	-20,573,011	-19.9
사업비	민간협력사업	57,964,460	59,861,500	1,897,040	3.3		회원사업	28,285,620	29,186,347	900,727	3.2
	교육참가비	12,255,900	6,280,000	-5,975,900	-48.8		조직사업	12,614,840	9,634,750	-2,980,090	-23.6
	소계	70,220,360	66,141,500	-4,078,860	-5.8		소계	144,107,424	121,455,050	-22,652,374	-15.7
기타	자료대여및 판매	118,000	6,800	-111,200	-94.2	기타	차입금상환	3,000,000	6,144,250	3,144,250	105
	이자수익	221,370	130,786	-90,584	-40.9		기타	361,700	3,111,670	2,749,970	760
	차입금	3,000,000	3,144,250	144,250	4.8		장기발전기금	0	30,091,773	30,091,773	0
	기타수익	396,120	853,675	457,555	115.5		소계	3,361,700	39,347,693	35,985,993	1,070
	고용지원금	0	893,320	893,320							
	소계	3,735,490	5,028,831	1,293,341	34.6						
수입	307,552,650	284,153,431	-23,399,219	-7.6	지출	303,979,714	290,680,228	-13,299,486	-4.4		
수입계	344,594,098	324,767,815	-19,826,283	-5.8	지출계	344,594,098	324,767,815	-19,826,283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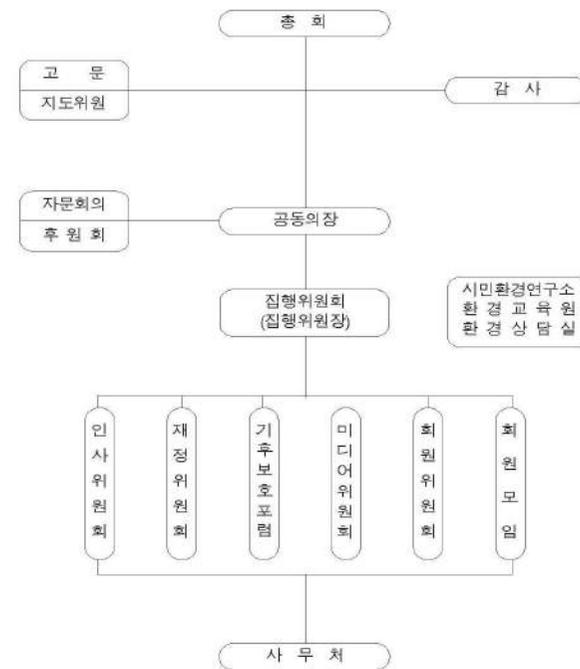
[비품 명세]

관리번호	품명	수량	취득년도	구입금액	비고
95-01-01	스탠드 스크린	1	1995	600,000	
96-01-01	잡지꽂이	1	1996		
98-01-01	월계획 백색철관	1	1998	50,000	
00-01-02	회의용 탁자	2	2000		
00-02-01	강의용 백색철관	1	2000	60,000	
01-01-11	목재 6단 책장	11	2001	950,000	
02-01-03	앵글형 책장	3	2002	60,000	
02-02-02	백색 5단 책장	2	2002		기증
02-03-06	원탁용 접의자	6	2002	200,000	
03-01-02	키폰	2	2003	560,000	
03-02-02	책장 철재 유리 책장	2	2003		기증
03-03-01	책장형 파일박스 4단	1	2003	140,000	
03-04-01	원형탁자(소)	1	2003	30,000	
03-05-01	철재 캐비닛	1	2003		
03-06-01	팩스 받침대	1	2003	100,000	
03-07-36	파티션	36	2003	1,780,000	
03-08-03	이동용 책상	3	2003	90,000	
04-01-01	짐수레	1	2004	37,800	
05-01-01	필름 스크린	1	2005	600,000	
05-02-01	애플	1	2005	600,000	
07-01-06	목재 3단 책장	6	2007	1,050,000	
07-02-01	레이저 포인터1	1	2007	87,000	2014 폐기
07-03-01	냉난방기(RAS-11)	1	2007	1,100,000	
07-04-01	냉난방기(CX-505FX)	1	2007	2,300,000	
07-05-01	냉난방기(CX-355F)	1	2007	1,850,000	
07-06-01	전기온풍기(REH-221S)	1	2007	140,000	
08-01-01	메가폰	2	2008		기증
09-01-01	프린터기(잉크젯)	1	2009	115,000	
10-01-01	냉온수기	1	2010		무상임대
10-02-01	레이저팩스	1	2010	375,000	
10-03-02	기부금함	2	2010	120,000	
10-04-02	외장하드(1테라)	2	2010	238,000	
11-01-01	데스크탑 4	1	2011	670,000	
11-02-01	데스크탑 5	1	2011	670,000	
11-03-01	노트북 1	1	2011	888,000	
11-04-02	노트북 2	1	2011	845,000	
11-05-02	노트북 3	1	2011	845,000	
11-06-01	레이저 복합기	1	2011	170,000	
11-07-01	전기주전자	1	2011	26,600	
12-01-01	데스크탑 6	1	2012	750,000	
12-02-01	노트북 4	1	2012	866,000	
12-03-01	싱크대, 조리대	1	2012	350,000	

12-04-01	근조기	1	2012	250,000	
12-05-01	깃발	1	2012	50,000	
12-06-01	냉장고	1	2012		기증
12-07-01	원목 긴의자	1	2012		기증
12-08-01	프린터기(레이저)	1	2012		기증
12-09-06	전화기	6	2012		기증
12-10-14	목재 6단 책장	14	2012		기증
13-01-16	강의실 접이 책상	16	2013		기증
13-02-48	강의실 접이 책상용 의자	48	2013		기증
13-03-01	레이저 포인터2	1	2013	60,000	
13-04-01	복사기(Docu 2508)	1	2013	1,700,000	
13-05-03	사무용 의자	4	2013		기증
13-06-04	사무용 책상	4	2013		기증
13-07-03	소파	3	2013		기증
13-08-01	소파 테이블	1	2013		기증
13-09-02	야외 접이 테이블	2	2013	70,000	
13-10-01	음향시스템	1	2013		기증
13-11-01	전동스크린	1	2013		기증
13-12-02	책상 서랍장	2	2013	70,000	
13-13-01	태양광 발전셋트	1	2013	485,000	
13-14-01	태양열조리기	1	2013	220,000	
13-15-01	회의용 테이블	1	2013		기증
13-16-06	회의용 테이블 의자	6	2013		기증
14-01-02	컴퓨터구입(2대)	2	2014	300,000	
14-02-06	시스템 업무용 책상	6	2014	90,000	
14-03-02	의자2기	2	2014	30,000	
14-04-06	시스템 책상 서랍장 6기	6	2014	60,000	
14-05-01	디지털카메라	1	2014	430,000	
14-06-01	전자저울	1	2013	120,000	*
14-07-01	하드디스크	1	2014	93,820	
14-07-02	프린터기(HP 7110)	1	2014		기증
14-08-01	쌍안경	2	2014	340,000	
14-08-02	미니애플	1	2014	297,000	
14-09-03	방사능 측정기	1	2013		
소계				23,979,220	

2015 조직구성(안)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도



【 임·위원 선임 및 사무처 안 】

■ 고문 : 정철웅, 전홍준, 정구선, 장두석, 안행강, 송인성, 성진기, 이근우

■ 감사 : 오원만(*임기만료), 김정민(*임기만료) → 연임

■ 공동의장 : 이정애(*임기중), 임낙평(*임기만료), 이인화(*임기중)

※ 신규 공동의장 인선 안 : 박태규

■ 집행위원회 : (정관상 집행위원회는 30인 이내 구성)

- 당연직 : (각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국장, 회원모임 대표)

기후보호포럼_ 차인수,

녹색감시단_ 정영남,

물한방울_홍한준_국윤주,

광주천지킴이_모래톱_홍기혁,

환경통신원_김미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_송형일,

사무처장_최지현,

국장_이경희 /8명

- 선임직 : 김태중, 박덕희, 박미경, 박태규, 신수봉, 서영주, 서정훈, 정순일, 정용식, 조경숙, 조어진, 최기호, 최철, 최홍엽

※신규_김상훈(변호사), 김영옥(치과의사) /16명

■ 사무처

- 사무처장(최지현. *임기만료) → 연임

- 정책실장/국장(이경희) ※이경희 국장 복귀

- 팀장(2월채용예정),

- 간사(박지연, 정은정, 이도경)

■ 부설기관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_이사장(조진상), 소장(최기호)

2015 사업계획(안)

2015년 사업계획 안

□ 배경 및 전망

● 성장만능주의에 대한 성찰 없음

: 경제 성장이 한계에 이른 국내외 사회 전반 여건을 냉철히 바라보지 않고, 성장 만능주의 국가정책으로 오히려 불평등, 빈부격차, 복지나 환경 문제 유발과 고착화 우려됨. 정부를 비롯한 지체층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변화를 직시 않고 있음. 대안경제, 대안사회 모색이 아닌, 구태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양극화 문제와 같은 경제문제와 더불어 환경, 에너지 문제 장기화 우려됨.

● 민주주의 후퇴

-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대안 도출 과정이 막혀 있음. 삶의 질과 향후 생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들이 객관적으로 전달되고 공론화 될 기회가 희박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검증, 이에 따른 합의 및 대안 도출과 실현이 더욱 어려워 짐. 모든 현안을 이념 갈등으로 치부하고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게 하여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개진의 풍토가 취약해짐.

● 사회 참여 취약

- 사회 공동체를 위한 시민 참여 의식과 의지 또한 약해질 수 있음. 특히 젊은층에서 이런 우려점이 두드러질 수 있음. 악순환의 반복임.

● 지역형 대안 발굴과 실현 절실

- 따라서 현장, 지역에서의 활발한 대안 모색, 구체적 모델 발굴이 더욱 절실함.
- 지방정부의 정책 견인 필요. 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 대안과 사례를 만들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시민참여의 방법과 기회를 활발히 하여, 사회갈등 요인을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선의 합의안이 형성되어야 함.
- 연대와 협력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함. 환경 과제를 우리사회 주요 의제화 하며 지역, 전국, 국제 연대와 참여를 활발하게 이끌어야 함.

□ 2015 사업 기조

- 지속가능한 도시상 가시화(안전사회, 에너지전환, 대안사회 구현),
- 시민 참여 활성화, 토론 등 소통을 통한 활동, 참여형 운동 전개
- 마을, 뿌뿌리 활동 활성화

- 지역 및 세계인과의 연대
- 생명평화 문화 성숙 및 녹색경제 기여
- 조직역량 키우기

□ 중점사업

- 탈핵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보호 운동
- 강하천 살리기 운동
- 녹색도시 만들기(안전한 도시, 생태도시, 자원순환도시)
- 환경교육
- 회원 조직화 사업

□ 추진사업

- 기후보호운동(기후포럼, 2°C 캠페인, 재생에너지 확산 운동)
- 탈핵, 원전 안전성 확보(탈핵학교, 노후원전 폐쇄캠페인, 사용후 핵연료 관련 대응)
- 4대강사업대응, 광주천영산강살리기(복개하천 복원, 하천조사,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 안전한 생활환경(대기질개선, 방사능식품 조사, 빛공해 대응)
- 자원순환도시(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자원순환교육)
- 생태도시만들기(도심 공원, 자연공원 보전, 환경과 인권 포럼)
- 환경교육(아시아 청년환경리더 양성, 환경교육인증기관 지정)
- 회원조직 사업(회원확대, 대학생 및 지역모임 조직, 위원회 활성화)
- 전국 및 지역 연대

기후보호 및 탈핵

[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환운동]

□ 사업목적

- 기후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 기후변화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시민플랫폼 만들기
- 지역과 전문가를 연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기후에너지 정책 생산
- 에너지 대안사회와 협동경제의 실현

□ 사업개요

- 기후에너지학교 개설과 '기후친사' 모임의 정례화
- 신재생에너지 갈등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의 난제 해결
- 기후보호포럼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생산
- 광주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건립 추진

□ 사업내용

1. 기후에너지학교

- 1) 일시 : 연2회
- 2) 내용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삶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이론교육과 현장답사를 병행함

2. 2°C캠페인

- 1) 기간 : 연중
- 2) 내용 : 지구온도 2°C를 낮추자는 의미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보호 캠페인을 펼쳐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함. 거리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접목시켜 재미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함.

3. 빅에스크 캠페인(기후변화법 제정 서명운동)

- 1) 기간 : ~5월

- 2) 내용 :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함.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의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진행해 옴

4. 기후보호포럼

- 1) 기간 : 분기별 세미나 및 포럼개최
- 2) 내용 : 기후포럼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참가자 간 교류의 장을 만들. 여러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후보호를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함. 광주 전남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정책생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함.

5.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 1) 기간 : 연중
- 2) 내용 : 운남생태네트워크 '리장시 말농장 메탄가스 시범사업' 공조를 통한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의 공동사업을 발굴함. 온라인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강화함

6. 신재생에너지 갈등해결 프로젝트

- 1) 기간 : 연중
- 2) 내용 : 행정, 발전사업자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갈등과 민원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임. 광주,전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사례를 종합, 분석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난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침. 우리지역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직면한 문제와 해법을 찾아봄.

7. 시민플랫폼 형성

- 1) 기간 : 연중
- 2) 내용 : 기후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책, 문서, 파일 등)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및 검색이 용이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기후에너지를 주제로 한 학습, 민원, 자료검색 등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8.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가칭)

- 1) 기간 : 연중
- 2) 내용 : 우리지역 제1호 시민참여형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가칭) 추진을 통해 에

너지 대안사회의로의 전환을 말하고 협동경제를 실현함. 조합의 설립과정에서의 실무역할을 도움

□ 기대효과

-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대안정책 생산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직면한 문제와 해법 찾기
- 기후에너지 운동의 성과를 시민들과 나눔
- 국제네트워크의 지속을 통한 동아시아 연대

[탈 핵]

□ 사업 목적 및 사업개요

- 탈핵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론화 확산
- 탈핵학교 및 탈핵 강좌
- 시민과 함께 원전1기 줄이기
-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집중 연대
-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확보 촉구 활동
- 비상계획구역 확대,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핵관련 현안에 대한 전국적 탈핵연대 강화

□ 사업내용

1. 탈핵학교 및 탈핵강사 인력 양성

- 기간 : 3월~4월 / 연중
- 개요 :
 - 핵문제를 이해하고, 탈핵 활동을 위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 일반 시민들이 핵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기후 에너지문제, 핵발전과 핵무기 등 에너지와 핵에 대한 이해
 - 핵발전의 문제와 대안 이해
- 프로그램
 - 제 4기 탈핵학교
 - 찾아가는 탈핵 강좌
 - 학생 시민대상 탈핵 및 기호보호 교육 운영

2. 시민의 힘으로 핵발전소 1기 줄이기- 노후원전 월성 1호기 폐쇄 집중 행동

- 기간 : 1~ 6월
- 개요 :
 - 전기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제안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위협이 되는 핵발전소 1기를 시민의 힘으로 줄이자는 캠페인 전개
 - 지역 시민단체, 종교계 등과 연대 협력
 - 시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홍보물, 소셜미디어, 언론 등을 통해 확산 운동

● 프로그램

- 탈핵 행동의 날 릴레이 캠페인
- 릴레이 기고
- 거리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 전국 집중행동의 날

3. 방사능 대응 및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 운동

- 기간 : 연중
- 개요 :
 - 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대 활동
 -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대응(한수원, 지자체)
 - 방사능 위험 알리기
 - 수산물 등 식품속 방사능 오염 대응
 - 대기 및 실내 공기질 - 방사능 오염 여부 조사
- 프로그램
 -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
 - 방사능 방재대책 요구
 - 영광원전 현안 대응 및 대안 모색을 위한 광주전남북 탈핵공동행동, 전국행동 연대

4. 기타_후쿠시마 사고 4주기 행사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광주천 및 도심하천 살리기 운동]

□ 사업목적

- 도심 하천의 지속가능성, 자연성 회복을 위한 활동
- 지속적인 광주천 모니터링을 통해 광주천 기록 구축 및 광주천 문제점 개선
- 지속가능한 광주천 등 하천 살리기 방안이 실현되도록 함.

□ 사업개요

- 하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하천 살리기 방안을 모색함.
- 풀뿌리 하천 지킴이들의 지속적인 하천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주도형 활동 정착
- 하천조사, 사진전, 정책 평가 및 제안, 하천생태지도 만들기, 하천생태 교육 등의 활동 전개
- 복개하천에 대한 문제 공론화, 복원 방향 제시

□ 사업내용

1. 광주천 모니터링 및 하천 자연도 조사

1) 광주천 모니터

- 기간 : 연중
- 장소 : 광주천 도심 구간
- 내용 : 매월 정기적으로 하천생태현황과 시설물들을 조사 기록, 현재의 하천을 평가하고 개선요구 활동 전개

2) 도심하천 자연도 조사

- 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 장소 :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수곡천, 소태천 등 도심하천 대상
- 내용 : 자연도 평가를 위한 하천조사, 수변환경, 수질, 수생식물, 사회모니터링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2. 광주천 및 지천의 복개 구간 대응 활동

- 기간 : 연중
- 장소 : 광주천 및 지천 구간
- 내용 : 복개하천 현황 조사, 간담회 혹은 토론회를 통해, 복개하천의 문제점, 현재의 복원 가능성과 방향 등을 공론화 함.

3.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 기간 : 3월~6월
-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및 도심하천 현장
- 내용 :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새로운 하천지킴이를 양성하여 광주천, 풍영정천, 황룡강, 평동천, 수곡천, 소태천 등 주요 도심하천의 지킴이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참여형, 시민주도형 하천지킴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

4. 하천 생태체험 교육 및 답사 진행

- 기간 : 4월~11월
- 장소 : 광주천 일대
- 내용 : 하천 생태 현황과 도심에서의 기능과 역할, 바람직한 하천살리기 방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하천 교육을 실시함. 환경교육 일환 및 자연체험기능으로서의 하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과 학생들의 환경교육 요구에 부응.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데 일조.

□ 기대효과

- 복개 하천 문제 대한 공론화
- 하천 복원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제시
- 풀뿌리 하천지킴이 활동가 역량강화
- 도심하천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관심 유도
- 광주천 등 하천에 대한 기록 및 안내자료 구축

[4대강사업 후속 대응 및 영산강 살리기 운동]

□ 사업목적

- 영산강 조사 등 현황 평가와 개선(물이 흐르는 영산강)

-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및 책임자 심판 촉구
- 영산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강살리기 참여 확대
- 지속가능한 영산강을 위한 시민 활동

□ 사업개요

- 4대강사업으로 변화된 영산강에 대한 평가와 심판, 영산강 회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감
- 전문가 및 지역 단체들과 함께 4대강사업 이후 발생되고 있는 수질악화, 홍수피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습지문제 등을 지속 조사하여 대안 제안
- 현장 조사, 토론회 시민답사 등
- 영산강을 회복하고 살리는 방안과 실현을 지역 주민, 지역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추진

□ 사업내용

1. 영산강 조사사업

- 1) 기간 : 연중(분기별 조사)
- 2) 개요 :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변화와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수행
 - 보 안정성 문제, 수질, 조류(藻類) 번식, 지하수위 상승과 이에 따른 부작용 역행침식, 호안 침식, 보호공 유실 지형 변화에 따른 현황 조사,
 -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촉구 활동 이어감
 - ①수질 및 생태현황 ②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영향(농지 침수 등) ③ 지형변화-역행 침식, 보호공 상황 ④ 토적 및 침식 상태 ⑤저질토 조사 ⑦ 정부 등의 자료 확보

2. 영산강 재자연화 캠페인

- 1) 기간 : 연중
- 2) 개요 :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흐르지 않는 강의 문제점과 폐해를 공론화 하며, 영산강이 강으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캠페인 전개. 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제로 잃어버린 영산강 되찾기(살리기) 활동을 전개함.
- 3) 내용 : 시민답사, 어린이 하천활동 등 현장 체험 및 이론내용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캠페인 참여 활동을 이끌어 냄
 - 어린이 및 시민(가족) 답사
 - 영산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표현하기(물의 날 행사)
 - 영산강 답사

3. 영산강 현장 시민답사

1) 영산강 답사 및 정화 활동

- 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총2회
- 장소 : 영산강 및 주요 지류 하천
- 내용 : 도보, 자전거 및 차량을 이용하여 영산강, 황룡강 등을 답사하고 정화활동을 실시하면서 훼손된 강의 복원 공감대 확산. 강의 보전의 소중함을 알리고 강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현장프로그램을 진행함.

4.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사업

1) 제 10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일시 : 7월 말 ~ 8월 초
- 장소 : 영산강 일대
- 내용 : 청소년들과 함께 영산강 유역의 주요 시·군을 탐사. 영산강의 수생태환경 및 동식물 조사, 향토문화, 역사, 경제 등을 탐방하여 영산강의 소중함을 알리며 강살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2) 제 7회 영산강 살리기 한마당

- 일시 : 11월 말
- 장소 : 영산강 유역권 시군
- 내용 : 영산강유역권 강살리기 단체, 기관들의 활동 총화, 공유, 향후 방향 토론

□ 기대효과

- 바람직한 하천살리기 복원 방향에 대한 공론화
-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과 재발 방지
- 하천 구역 등의 난개발 저지
-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정책 결정과 추진, 객관적 검토와 영향 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 및 실현

안전한 생활 환경

[대기질 개선 사업]

□ 사업목적

-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기여
- 미세먼지, 방사능, 악취 등 대기 환경문제 공론화
- 어린이 등 취약자 보호책 마련

□ 사업개요

- 미세먼지, 초미세 먼지 대응
- 시민들이 일상에서 관심과 우려감을 갖고 있는 환경문제, 특히 대기질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함.
- 조사,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방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함.

□ 사업내용

1. 대기질 조사·연속 활동

- 기간 : 5월 ~ 10월
- 장소 : 광주 도시 주요도로, 학교 앞 등 200~300곳
- 내용
 - 학교앞, 교통 혼잡지역, 주택 등 주요 거점 대기질 조사 (연속활동)
 - 악취, 방사능 등 생활안전 환경에 대한 조사
 - 광주시의 대기질 측정망 자료 등을 활용, 대기질 개선 현황 파악 및 개선안 모색

2. 대기질과 건강 강좌 및 캠페인

- 기간 : 7월, 10월
-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교통 혼잡 지역 등
- 내용 :
 - 대기질과 시민건강과의 상관관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강좌.

- 교육 참여자 등과 함께 거리 캠페인 등 전개(승용차 없는 날 등 참여)
- 친환경 운전 습과 등 가능한 시민실천으로 대기질 개선 목적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운전문화 정착
- 운전자 모임, 학생 시민 참여 유도

3. 미세먼지 개선 방안 토론회

- 일자 : 10월 중
- 내용 :
 - 대기질 현황, 대기질 개선 정책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구체적 실천 사례 소개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 강구와 실천을 위한 토론회
 - 미세먼지 문제 등 대기 환경문제로써 시급히 대응이 요구되는 주제에 대한 간담회 개최 포함.
 - 전문가, 시민, 행정 참여
 - 어린이 천식 등 건강 조사 실시

4. 차없는 거리 - 승용차 없는 거리, 대중 교통 존 지정 요구 - 지정 촉구

- 기간 : 5월 ~ 11월
- 내용 :
 - 자동차와 환경문제, 기후문제, 에너지문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공론화, 차없는 거리로 상징화 시켜, 구체적 시민 참여와 실천 안 강구가 목적,
 - 금남로 차없는 거리 등 지역적 특성과 현황 고려하며 차없는 거리 공론화와 실현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대기질과 건강 문제 관심 제고
- 대기질 개선안 공론화 대책 마련
- 대기질, 교통, 에너지 문제 상호 접근
- 어린이 등 취약층,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촉구

[빛공해 대응]

□ 사업목적

- 과도한 빛(빛공해)은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수면부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농산물 생육 저해 원인이 되는 바,
- 지역 빛공해 현황 조사, 빛 공해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대안책을 모색하기 위함임.

□ 사업개요

- 빛공해 측정 및 평가단 구성
- 빛공해 현장 조사 및 시민인식 조사
- 빛공해 지자체 대책 조사
- 빛공해 관련 간담회

□ 사업내용

1. 빛공해 측정 및 평가단 구성

- 기간 : 5월
- 내용 : 빛공해 관련 교육을 실시, 상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구축

2. 광주 지역 변화가 등 빛공해 현장 조사

- 기간 : 6월, 8월, 10월
- 내용 : 빛공해 우려 지역 조사. 특시 주거지역과 연계된 곳 등을 대상으로 조사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함.

3. 빛공해 관련 시민인식 조사

- 기간 : 7월 ~ 9월
- 내용 : 시민들의 빛공해 인식 및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내용으로 조사. 또한 지자체 등 제도권의 대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안 모색함.

□ 기대효과

- 빛공해 관련 법률 및 조례가 제정되었음. 현재 빛공해 현황과 대책을 모니터 하고, 개선안 도출
- 빛공해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기대. 건강문제 에너지 문제와 연계되어, 대안 실현 기대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사업목적

- 자원순환형 마을만들기 연속 진행
- 동네 쓰레기 문제인 불법 투기 개선 및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 모색
- 마을 공동체 문화 회복 기여

□ 사업개요

-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및 실천사례 만들기 연속 사업
- 쓰레기 문제해결 및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실천을 마을사업 형태로 추진함.
- 주민주도형 지역맞춤형 사업을 위해 조사, 주민간담회, 교육 평가회 등을 진행함.
- 지난 마을 만들기 현장 점검 및 지속가능성 모색

□ 사업내용

1.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추진단 운영 및 홍보

- 기간 : 5월~10월
- 목표 : 자원순환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회의(협의) 및 실행, 평가 및 환류
- 방법 : 자원순환마을만들기를 위한 거버넌스, 협치체계 구축
자지구청, 주민 모임 및 네트워크 등에 제안 마을만들기 추진

2. 우리동네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현황 등 기초조사

- 기간 : 5월 ~ 7월
- 목표 : 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개선 실행을 고려한 조사 시행
- 내용 :
 - 재활용 및 쓰레기 자원화 주민 인식조사 (5~6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황(5 ~ 6월)
 - 불법투기 실태조사(5월 ~ 7월)
: 마을 인근 지역 불법투기 실태 현황파악 및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조사
 - (주민교육 및 기초 현황 조사 이후) 주민 인식 조사, 실태 조사(8월~9월)

- 대상 집단 : 지역민 대상 및 단독주택 지역(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 실천 개선 필요 지역)

3. 주민간담회 및 토론회

- 기 간 : 5월, 6월, 7월, 9월
- 목 표 : 주민 주도,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토대형성, 주민사례 발굴
- 내 용 :
 - 자원순환형 마을 만들기 방안 협의 /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 불법투기 문제해결 토론 : 주민이 생각하는 대안은?
 - 우리동네안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
 - 재활용품 배출공간 개선 방안
 - 우리동네 특화형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방안 협의

4. 주민참여 교육, 찾아 가는 자원순환 현장

- 일정 : 6~7월, 9월~10월
- 목표 : 쓰레기문제에 대한 이해, 우리지역 맞춤형 대안 실현 강구.
- 내용 :
 - <교육>
 - 쓰레기 배출 및 자원화 현황
 - 우리 동네 재활용 분리배출의 문제점 개선방안
 - 쓰레기는 자원? 자원! 보물!! (사례찾기 교육)
 - 재활용, 자원순환 정량화
 - 재활용품별 배출량 및 재화로 환산하여 정량

<현장 탐방형 교육>

-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사료화 사업소, 재활용선별장 등 시설 견학

5. 자원순환 마을 잔치- 자원순환 나눔 장터 및 전시회

- 내용
 - 자원순환 나눔 장터 및 재활용 작품 전시회, 감량 성과 및 개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 개최
 - 자원순환거리 텃밭상자 등

기대효과

- 참여형, 실천형 자원순환 모델
- 거버넌스 주민참여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실천사례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조성기여
- 참여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강화
- 마을단위 자원순환 장애 요소 파악 및 지역 맞춤형 개선 방안 발굴



[도시 공원·자연공원 보전운동]

사업목적

- 생태도시 광주를 구현하기 위해 일상의 녹지공간 보전 및 확대
- 미조성공원의 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연속활동,
- 도시공간의 친환경적 활용 및 인간 존중형 도시공간 조성
- 도심속 녹지 보존과 확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보전

사업개요

- 도시공원 및 공공공간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미조성공원 및 중앙공원에 대한 조성요구, 푸른길공원 지키기, 친환경적 도시공간 구성 및 가치 확산

사업내용

1. 푸른길 보전 운동

- 1) 도시숲을 잇는 푸른길
- 2) 사람을 잇는 푸른길
- 3) 마을을 잇는 푸른길
- 4)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한 푸른길 공원 훼손문제 대응

2. 미조성공원의 공원화

- 1)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공원 지정활동

- 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심공원 해지가 우려되는 바, 미집행공원에 대한 조성 및 대안 촉구 활동
- 중앙공원 조성계획 재수립완료이후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의 지속적인 행정의 노력 촉구

2)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공원화사업

-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공원화요구로 공원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방치되고 있는 공원의 공원조성 활동 연속

3) 도심 녹지 공간 보존

-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부지, 쌍촌동 호남대학교 부지 개발 대응 등 도심의 녹지 보전 활동

3.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복원 운동

-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시민캠페인 전개
- 광주지역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릴레이 캠페인, 답사, 간담회 등을 전개
- 무등산이 본래의 산으로 복원 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공공 공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광주로의 전환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미조성공원에 대한 단계적 조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일몰제에 대한 대응활동 전개
- 푸른길 공원 보전과 가치 확산
- 무등산 정상 복원 기여

[환경과 인권 도시포럼]

□ 사업 목적

- 수자원과 에너지 확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이유로 아시아 지역 주요 강에 거대 댐 건설계획이 난무. 이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대한 우려, 환경파괴, 개발과정에서 토착민의 생

활권, 인권 침해 문제 유발 문제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세계의 물 문제 현황을 공유하고,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인권 보장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로서 환경과 인권 포럼을 개최함

□ 사업 개요

- 주제 : 지속가능한 물, 지속가능한 인권 - 강 난개발과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기간 : 2월 ~ 6월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 참가인원 : 100~200여명 (국내외 전문가, 시민 등)

□ 사업 내용

- 주제회의 - 포럼 (5/16 혹은 5/17)
 - : 주제발표1. _ '물과 인권, 도시의 지속가능성 '
 - : 주제발표2. '중국 삼협댐 등 대형 댐 건설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
 - 다이칭(미국, 환경· 민주화운동가, 골드만상 수상자)
 - : 주제발표3. '댐건설과 토착민의 인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 Mean Meach, 인터내셔널 리버스 (메콩강보전네트워크) 캄보디아 메콩강보전 활동가
- 포스터 발표(5/15~5/17)
 - 각 국, 지역별 물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 사진을 포럼 행사장에 전시
- 현장 워크숍
 - 포럼 국외 발표자 현장 활동. 2015년 '환경과 인권' 회의와 관련 있는 우리나라 현장 방문. 여론 상기, 후속대안 모색
 - 4대강사업 댐 현장 혹은 지리산댐 계획지역 지역민과의 간담회 등
- 워크숍_물과 인권, 도시의 지속가능성
 - 환경과 인권에 대한 이해.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과 인권 상관관계 사례 공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 기대효과

- 환경과 인권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도시의 기반으로써 인권의 중요성 공유
- 4대강사업, 지리산댐 등 대형 댐건설에 따른 문제점 공론화 기회

환경교육

□ 사업목적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시스템 구축
- 어린이프로그램, 자원순환교실 등 지속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제도화 기반 마련
-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교육대상 발굴

□ 사업개요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환경강사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전문지도자인력구축
-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1. 지속사업의 활성화

1) 어린이 자연나들이

- 일시 : 4~6, 9~11월 (월1회, 총6회)
- 내용 : 숲, 하천, 에너지 등 월별주제에 따른 생태체험 프로그램, 환경교육 전반을 주제로 삼아 자연과 환경에 대한 넓은 이해와 체험을 돕도록 함. 상·하반기(각3회)로 어린이모집.

2) 어린이(여름, 겨울) 캠프

- 일시 : 8월, '16. 1월 (총2회)
- 내용 :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집중적인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 실내외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배치하여 이론과 체험 교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함.

3) 자원순환교실

- 일시 : 3~6, 9~12월 (8차시, 총2회)
- 내용 :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으로 이론과 체험교육을 진행함.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기회를 넓혀가고자 함.

2. 환경교육 강사 양성 및 재교육

1) 환경강사 심화교육프로그램

- 일시 : 5~8월 (월2회, 8차시)
- 내용 :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후천사, 하천지킴이의 수준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진행. 특히 환경교육을 진행하기위한 교수법, 수업안 작성법 등을 교육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하고, 이를 교육 사업에 활용함.

2) 대학생 교육봉사단 구성

- 일시 : '15. 3월 ~ '16. 1월
- 내용 : 대학생 자원봉사 교사 이론 및 소양 교육이 필요. 환경교육 교사의 역할을 습득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함. 자연나들이, 캠프 등에 지속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함.

3.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1) 지속사업의 보완

- 일시 : 연중
- 내용 : 에너지교육, 하천교육, 자원순환교육 등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초, 중, 고 등 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2) 연계프로그램 개발

- 일시 : 연중
- 내용 : 학교교과과정 분석과 평가자료를 정리하여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상반기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와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 진행을 함께함. 특히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함.

4.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일시 : 연중
- 내용 : 연중 캠페인, 환경의 날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함. 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하고 접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킴.

5. 새로운 교육대상 발굴

1) 아시아 청년환경리더 양성교육

- 일시 : 3월~6월 (강의 4회, 워크숍 1회)
- 내용 : 아시아 저개발국가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환경리더양성교육으로써, 아시아 환경이슈에 초점을 맞춘 여러 방면의 환경교육을 진행. 추후 지속적인 교류로 국제적인 네트워크형성

□ 기대효과

- 다양한 대상별, 주제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속적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
- 환경강사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인력구축 및 회원참여 확대

회원 조직화 사업

□ 사업목적

- 회원 및 시민참여 활동확산 및 조직적 활동 토대 구축
- 적극적인 회원배가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재정적 안정성 확보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 활동 활성화

□ 사업개요

- 회원확대캠페인을 비롯한 회원배가 활동
- 생태적 가치를 담은 회원가족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기존회원소모임 활성화 및 신규 회원소모임
- 다양한 매개체를 이용한 환경이슈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사업내용

1. 회원확대 사업

1) 회원관리

· 기간 : 2~4월

· 내용 : 6개월 이상 회비미납회원에 회원유지여부 및 회비납부여부 확인 후 처리, 탈퇴 및 보류 회원 파악. 회원정보 정리 및 수정을 대대적으로 진행. 또한 회원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의 구성을 가입년도, 주소, 연령대 등의 항목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회원관리 및 회원확대캠페인에 참고사항으로 활용

2) 회원확대 집중 / 연중 캠페인

· 기간 : 4~6월 / 상시

· 내용 : 회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진행함. 효율적인 회원확대 방안을 마련해 캠페인에 집중
· 목표 : 300명 회원 확대 * 현재 1,744명 (2014년 12월 31일 기준)

2~4월	5~6월	7~8월	9~12월
기존회원 관리(회비미납회원, 탈퇴, 보류회원 점검 등)를 통한 회비 납부를 개선	회원확대캠페인	상시 회원확대	회원확대를 위한 회원모임별 초록캠페인
30명 회원확대	150명 회원확대	30명 회원확대	90명 회원확대

3) 신규회원의 날

· 기간 : 6월 말(회원확대 캠페인 종료 후)

· 내용 : 신입회원에게 환경연합 활동을 소개하고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회원소모임을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각각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

2. 회원 참여 프로그램 운영

1) 생태답사 자연체험 프로그램

· 일시 : 연1~2회

· 내용 : 회원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생태답사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

2) 회원체육대회

· 일시 : 10월

- 내용 : 회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동심을 기르고 회원들 간의 친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 및 회원조직 사업

1) 위원회의 활성화

- 위원회의 전반적인 활성화 모색
- 지도위원 모임 정례화(상하 반기) 및 상시적 자문 협력 (전문가 등)
- 정책위원회의 신설을 검토

4. 회원모임 활성화

1) 신규 회원모임 조직

- : 기타 회원들의 요구 참여 희망에 따라 다양한 회원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풍암, 금호, 화정_서구지역주민모임 결성
 - 등산모임, 음식만들기, 청년 동아리 등

2) 회원모임 운영 및 활성화

[녹색감시단]

- 매월 정기 모임 개최
- 회원 단합, 회원확대
-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개선 활동
- 환경현안 대응 참여, 환경연합 행사에 적극 참여

[물한방울 흠한줌]

-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답사 및 1박2일 기행을 진행
- 가족 단위 모임, 일반회원 참여
-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정기모임 진행
- 답사 프로그램 활성화와 회원활동 프로그램에 기여함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 매월 전체 회원정기 모임 및 구간별 답사와 조사
- 회원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광주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월별 정기적 모니터 및 사진기록과 공유

- 광주천 지천 살리기
- 광주천 개선방향 제안
- 광주천 하천생태교육을 통한 회원양성

[환경통신원]

- 매월 정기 모임 개최
- 회원확대와 회원 교육, 환경캠페인 참여
- 기후보호 운동, 대기질 개선, 광주천 영산강 정화활동 등에 참여
-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고발,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 매월 정기 모임 개최
- 시낭송회_ 시 낭송과 감상 나누기
- 회원확대 및 교육
- 문화 공연 참여, 작가 탐방
- 시낭송회 자원활동, 환경연합 활동 지원

[일곡·양산 모임]

- 일곡동, 양산동 지역의 마을모임,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 매월 1회 정기모임
- 회원확대를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풍암, 금호, 화정 모임]

- 올해 결성으로 목표로 함
- 지속적인 홍보, 참여 프로그램 진행으로 참여회원 확대
- 지역 환경문제 함께 논의하고 대안 모색
- 정화활동 등 실천으로 환경개선과 보전 기여

4. 홍보활동

1) 소식지 '맑은 삶, 맑은 터' 발행

- 일시 : 매월 1회
- 내용 :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이슈와 현안, 사무처 활동소식, 회원모임 활동소개, 공지사항

등을 담은 단체 소식지, 회원과 사무처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2) 월간지 '함께 사는 길' 발송

- 일시 : 매월 1회
- 내용 : 환경운동연합 부설기관 '함께 사는 길' 에서 매월 발행하는 환경전문지 '함께 사는 길' 을 구독 신청한 회원에게 발송.

3) 웹 소식지 '자연지기' 발송

- 일시 : 매월 2회
- 내용 : 활동소식, 행사안내 등을 중심으로 하고 환경이슈에 대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음.

4) 홈페이지, SNS활용

- 성명서, 보도자료 등 활동자료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함
- 소셜 네트워크 활용확대를 통한 다각도 홍보, 쌍방향 소통 강화

5. 후원의 밤 행사

- 일시 : 11월 중
- 내용 : 후원인 분들과 후원회원들을 초청 해 활동보고와 비전제시로 환경운동의 방향을 소개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공연과 캠페인 등을 소개

□ 기대효과

- 회원확대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및 장기적 재정안전도 확보
- 회원모임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회원조직 강화, 회원 활동 참여도 향상
- 웹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한 환경운동연합의 이미지 확산

[회의 및 위원회 운영]

1. 정기총회 :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 회의: 매년 1월중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날짜와 시간 정해서 소집
 - 내용: 감사보고안,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 사업 및 예산안 심의

2. 집행위원회 : 상시적 사업 및 조직 운영에 관한 결정 및 집행

- 회의: 정기회의-매월 첫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임시회의-필요시 집행위원장 소집
- 내용: 사업 및 활동내용에 대한 검토와 추진방향 논의

3. 자문회의 : 고문, 공동의장, 감사, 부설기관 대표가 참여

- 회의: 정기회의-집행위원회와 분기별로 연석회의, 임시회의- 필요시 공동의장 소집
- 내용: 사업 자문

4. 지도위원 보고회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위원 위촉
- 상하반기 각 1회씩 활동보고 및 자문

지역 및 전국연대

[전국환경운동연합]

1. 대표자회의 / 분기별 1회
2. 전국국처장단회의 / 격월, 필요시 소집
3. 광주, 전남 사무국회의 / 분기별 1회
4. 광주전남 임원활동가 수련회 / 상하반기, 총 2회
5. 전국환경연합 임원활동가 수련회 / 상하반기 총2회
6. 전국회원대회 / 연 1회(하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 회원단체 참여 및 활동
 - 광주시 예산과 정책 평가와 감시, 정책제안 및 실현 강구, 지방자치와 분권, 정치혁신을 위한 연대활동 참여, 지방선거 대응
2. 지역 공동의 시민사회운동 연대 참여
 - 5.18 기념사업 및 실천사업 참여 및 연대
 - 지역현안 대응과 개선에 대한 연대와 협력
3.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연대
 -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지방선거 대응 특별위원회 등 참여

[푸른광주21협의회]

1. 분과사업 활동 참여
2. 지구의 날, 차없는 날 등 환경기념 연대협력사업 참여
3. 교류회, 워크숍,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참여 등 지방의제 21 기구와의 연대 활동

2014 예산(안)

2015년 예산(안)

※단위 : 원

수입부		지출부	
전년도 이월금	34,087,587	경상비	공과금(통신, 관리비 등) 7,200,000
			소모품 및 수선비 2,400,000
어린이·청소년회원	6,000,000		비품구입비 3,000,000
일반회원	126,000,000		후생복지 17,621,760
가족회원	16,800,000		보험료 6,400,000
단체회원	9,000,000		인건비 122,666,710
평생회원	4,000,000	사	계 159,288,470
특별(임원)	4,860,000	사업비	환경교육 20,000,000
계	166,660,000		탈핵, 기후보호운동 40,000,000
			생태도시 25,000,000
			광주천·영산강 살리기 25,000,000
			30주년 기념사업 5,000,000
후원의밤 등 기부금	66,000,000	회	경기간행물(회보, 잡지) 18,840,000
회보광고	1,000,000	원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12,000,000
계	67,000,000	사	회원모임 지원 2,400,000
		업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10,000,000
민간 협력사업	70,000,000	비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2,400,000
교육참가비	10,000,000	조직	정기총회 및 회의 4,000,000
계	80,000,000	등	후원의밤 5,000,000
			중앙/지역 연대 7,800,000
고용지원금	9,000,000	기	계 177,440,000
자료대여, 판매 등	252,410	타	장기발전기금 22,000,000
대여금 상환	3,000,000		예비비 1,471,530
계	12,252,410		계 23,471,530
총 계	360,000,000	총 계	360,000,000

2014년 결산(안) 대비 2015년 예산(안) 비교

수입부			지출부		
항목	2014 결산	2015 예산안	항목	2014 결산	2015 예산안
전년도 이월금	40,614,384	34,087,587	경상비	공과금(통신, 관리비) 6,215,640	7,200,000
어린이·청소년회원				소모품 및 수선비 1,329,390	2,400,000
일반회원	149,456,200	157,800,000		비품구입비 1,104,820	3,000,000
가족회원				후생복지 9,209,900	15,227,590
단체회원				보험료 6,273,235	6,400,000
평생회원	3,000,000	4,000,000		인건비 105,744,500	126,664,770
특별(임원)	3,880,000	4,860,000	계	129,877,485	160,892,360
계	156,332,000	166,660,000	중점 및 연속사업	환경교육 5,492,700	20,000,000
후원의밤 등 기부금	56,651,100	66,000,000		기후보호운동 41,604,794	40,000,000
회보광고		1,000,000		생태도시 18,751,479	25,000,000
계	56,651,100	67,000,000		영산강·광주천 살리기 16,784,980	25,000,000
민간 협력사업	59,861,500	70,000,000		30주년 기록물 정리 -	5,000,000
교육참가비	6,280,000	10,000,000	사업비	경기간행물(회보, 잡지) 16,917,350	18,840,000
계	66,141,500	80,000,000		홍보물제작, 우편, 수수료 5,004,760	12,000,000
자료대여	6,800			회원모임 지원 1,851,500	2,400,000
이자수익	130,786	12,252,533		회원 조직 및 참여사업 3,104,737	10,000,000
차입금/상환	3,144,250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2,308,000	2,400,000
고용지원금	893,320			정기총회 및 회의 981,320	4,000,000
기타수익	853,675			후원의밤 3,120,750	5,000,000
계	4,175,156	12,252,533		중앙/지역 연대 5,532,680	8,400,000
총 계	324,767,815	360,000,000	조직/연대	계 121,455,050	178,040,000
				차입금이자 및상환 6,144,250	
				장기 발전 기금 30,091,773	200,000,000
				기타 지출 / 예비비 3,110,670	1,067,640
				계 39,347,693	21,067,640
			총 계	324,767,815	360,000,000

예산 세부(안)

■ 예상수입(안)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전년도 이월금	34,087,590	
회 비	어린이·청소년회원	6,000,000	5,000×100인×12개월
	일반회원	36,000,000	5,000×600인×12개월
		90,000,000	10,000×750인×12개월
	가족회원	16,800,000	20,000×70인×12개월
	단체·기업회원	9,000,000	50,000×15곳×12개월
	평생회원	4,000,000	2,000,000×2인
	특별(임원)	4,860,000	30,000×13.5인×12개월
	소 계	166,660,000	
후 원 금	후원·기부금	66,000,000	후원의 밤, 연중
	회보광고 등	1,000,000	100,000×1곳×10개월
소 계	67,000,000		
사 업 비	민간협력사업	70,000,000	10,000,000×2개(생태도시, 환경교육) 10,000,000×3개(기후보호, 생활안전) 10,000,000×2개(하천살리기)
	교육참가비	10,000,000	1,250,000×8회
	소 계	80,000,000	
기 타	고용지원금,	9,000,000	고용지원금 등
	자료판매 등	252,410	자료판매 등
	대여금 상환	3,000,000	*푸른길
	소 계	12,252,410	
수입	379,912,410		
수입총액	360,000,000		

■ 예상지출(안) I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경 상 비	통신, 관리비	7,200,000	전화통신비 2,400,000=200,000×12월	
			건물관리비 4,800,000=400,000×12월	
	소모품 및 수선비	2,400,000	200,000×12월	
	비품구입비	3,000,000	PC, 프린터 등	
	후생복지	17,621,760	중식 7,092,000=5,000×6인×19.7일×12월 퇴직적립금 8,609,760(기본급 100%) 활동가 재교육 및 공제회 지원 1,920,000=10,000×6인×12개월+ 1,200,000	
	4대보험	6,400,000	6인 4대보험	
	운영비 계	36,621,760		
	인 건 비	상근활동가 급여 -공동의장1 -사무처장1 -정책실장1 -팀장1 -간사3	101,047,190	1,957,260×1인×1개월=1,957,260 1,707,560×1인×12개월=20,490,720 1,731,010×1인×11개월=19,041,110 1,510,860×1인×10개월=15,108,600 1,291,930×1인×12개월=15,503,100 1,206,100×2인×12개월=28,946,400
		상여금	17,219,520	기본급 200% (50%×4회)
		직책/활동 수당	4,400,000	책정(내규) 수당의 50% ※ 사무처장1. 300,000 정책실장(국장)1. 200,000 팀장1. 100,000 (간사3. 150,000)
인건비 계		122,666,710		
			※ 사무국장 1인과 팀장급 활동가(2월, 3월부터 근무시작)	
경상비 합계	159,288,470			

■ 예상지출(안) II

※단위 : 원

관	항	목	금 액	내 역	
사 업 비	중점 및 연속 사업	환경교육	20,000,000	2,000,000×10회(어린이, 일반 등)	
		탈핵, 기후보호운동	40,000,000	탈핵, 에너지 전환 20,000,000 기후변화 대응 20,000,000	
		생태도시	25,000,000	자원순환, 빗공해 대응, 도시계획, 인권포럼 25,000,000	
		광주천· 영산강살리기	25,000,000	하천살리기(영산강 광주천, 지천)25,000,000	
		30주년 기록물(1차년)	5,000,000	30주년 기록물- 구술기록,자료 수집정리 등 500,000×10회	
		소 계	115,000,000		
	회 원 사 업	정기간행 (회보,함께사는길)	18,840,000	(함·길) 14,040,000=1,800×650부×12월 (회보) 4,800,000=400,000×12회	
		홍보물 제작, 우편료	12,000,000	1,000,000×12월	
		회원모임 지원	2,400,000	300,000×8개	
		회원조직 및 참여사업	10,000,000	회원확대캠페인 5,000,000(홍보물, 현장 활동) 회원만남행사 1,500,000×2회 소모임 조직 1,000,000×2개	
		홈페이지,자료실, SNS운영	2,400,000	서버 이용 및 관리200,000×12월	
		소 계	45,640,000		
	조 직 및 연 대 사 업	정기총회 및 회의	4,000,000	정기총회, (상설)위원회 등	
		후원의밤	5,000,000	1회	
		중앙/지역 연대	7,800,000	650,000×12개월(전국분담금, 시민협 회비, 상시연 대 사업 등)	
		소 계	16,800,000		
	사업비 합계			177,400,000	
	기 타	사무실이전/장기발전기금	22,000,000		
예비비		1,271,530			
소 계		23,271,530			
(사업비+기타) 계			199,107,640		
지출총액(경상비+사업비+기타)			360,000,000		

부 록

- 성명서/논평
-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 활동
- 정관
- 회원 생활수칙

【성명서/논평】

**국회의원이 타당성 없는 케이블카설치를 위해 환경부를 압박해서는 안 될 일
이낙연 의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를 중단하라!**

지난 21일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환경부장관에게 구례를 지리산 삭도(케이블카)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벗어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부가 나서라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4개 시군은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해 왔다. 구례, 남원, 산청, 함양 지자체가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관광활성화라는 막연한 기대로 케이블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들 지자체가 환경부에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환경성과 경제성 등이 미달되어 모두 불허되었다. 규정과 절차대로라면, 케이블카 설치 허가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때를 쓰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국회의원이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 의원은,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 케이블카가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전남지사 민주당 예비후보자로서도 이러한 행동은 합당하지 않다.

케이블카 요구자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입산객들이 폭증하는 상황에 지리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삭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나, 산 정상까지 쉽게 입산을 허용 토록하여 자연 훼손은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많은 탐방객과 비싼 이용료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생태 보전과 상반된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태 환경 보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합당한 근거 없이 관광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낙연 의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주장을 중단하라.

2014년 2월 24일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라!

- 서울 경기 등 수도권만 시행중인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 광주전남 등 지역은 미시행
- 미세먼지 보다 심각한 초미세먼지 또한 농도가 짙은 날 지속
- 초미세먼지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준치를 웃도는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PM10)에 대한 대책으로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예경보제는 서울시 경기권 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 등 지역에서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한 상태라고 해서 초미세먼지를 안심할 수 없다. 광주시의 현재 미세먼지 예보상황은 '보통' 상태로 발표되고 있으나,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나 2015년부터 시행할 기준치를 웃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및 광주시의 규제와 관리 기준이 시행되고 있고 초미세먼지는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단계적 목표수립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초미세먼지의 문제가 연일 계속 되고 있고 봄과 가을철에도 반복될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초미세먼지 상황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초미세먼지 기준이 시행되기 전이고 측정 시스템 또한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가 정상적인 예경보제는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수치를 웃돌아 시민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주시나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당장 가능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2014. 2. 28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석강에 멸종위기종 1급 귀이빨대칭이 서식

- 광주환경연합, 영산강의 주요 지류인 지석강에서 호사비오리(천연기념물, 국제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멸종위기종 1급)가 서식한다는 사실 확인.
- 귀이빨대칭이는 그간 지석강에 서식 사실이 보고된 바 없어 최초 보고인 셈.
- 지석강이 아직 우수한 환경여건이라는 방증. 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서식처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임낙평, 이인화)은 최근 지석강 하류에 천연기념물인 호사비오리 10여마리가 도래하여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멸종위기종 1급인 귀이빨대칭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이를 문화재청과 환경청에 알리고 서식현황에 대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호사비오리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448호이며, 세계적으로 1,000여마리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 멸종위기종 조류이다. 호사비오리는 우리나라 겨울 철새로 이전에는, 남한강이나 남강에서 관찰되었다. 5~6년 전부터 매해 10~20여 마리가 지석강에도 도래하여 겨울을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석강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은 위도상 가장 아래쪽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며, 이전과 변화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귀이빨대칭이는 담수패류중 가장 큰 종으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종이다. 그간 지석강에서 서식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없어, 이번에 최초 확인한 셈이다. 주민들도 멸종위기종이라 인식 못하여 식용 등을 목적으로 채취하고 있는 등 귀이빨대칭이가 보호종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책 없이 하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석강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도정비,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현재의 공사가 서식환경에 민감한 생물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와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호사비오리, 퀴빨대칭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강의 수질이나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방증이다. 지속가능한 보존과 보호를 위한 대책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영산강은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다양한 생물종 서식 환경에 있어 더 악화되었다. 영산강 지류인 지식강은 생태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후 영산강 생태환경 복원 과정에 지식강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포함한 생물종, 서식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2014. 3. 20

광주환경운동연합

.....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후쿠시마 3주기 성명>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3년,

핵 없는 광주전남을 위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6개월이면 안정화할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노심용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톤씩 방사능이 하늘과 바다로 임의대로 유출되고 있으며, 후쿠시마발 방사능은 온 지구로 확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당당하게 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고, 가동중단 중인 핵발전소들을 재가동 하겠다고 발표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본정부에게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제부흥,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명분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후쿠시마를 지우고 잊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 밖에 의미가 없었다.

최대 41기까지 확대 계획

우리정부 또한 일본정부의 사고 후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 하여 우려와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친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을 29%로 결정하고 현재의 23기에서 최대 41기로 까지 확대할 계획을 내놓고, 정부차원에서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위조·짝퉁부품 비리와 잦은 불시정지 사고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핵발전소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방재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유로 묵묵부답하고 말장난만 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의 ‘비등형 경수로’와 달리 ‘가압형 경수로’로 원자로형이 달라 안전하다”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광주에서 영광 한빛원전까지 30km

후쿠시마 핵사고 3년. 우리의 일상은 이미 방사능으로부터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다. 밥 한 숟마저 맘 편히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이제 더 이상 1,300여km이상 떨어진 후쿠시마가 아닌 우리 생활로부터 불과 30여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짝퉁·위조부품으로, 부실정비로, 특하면 불시정지 등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안하고 믿을 구석이아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영광 한빛원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영광 한빛원전은 가동을 시작한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사고와 고장만도 158건에 이른다. 계속되는 위조·짝퉁부품 등 비리사건과 부실·불법정비 상태로 수개월동안 원전을 가동 등 영광 한빛원전은 위험천만한 상태다. 특히, 지난 1월에는 2명의 아까운 목숨까지 앗아가는 등 각종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의 안전을 확인할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핵없는 광주전남을 위한 준비는 수명연장 없는 폐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핵발전소로 인한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영광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되지 않으리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만의 몫은 아니다. 지방정부에게도 원전의 안전확보는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정부는 법적근거와 행정경계를 이

유로 반기해오고 있다. 원전의 안전확보를 통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의무는 지방정부에도 있다. 핵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전라남도도 광주시는 반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최소의 노력 중 하나는 영광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을 막는 것이다. 후쿠시마의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수명연장한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2026년 영광 한빛 1호기부터 수명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폐쇄해가기 위한 ‘영광원전 폐쇄 로드맵’을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대응과 생활속 탈핵운동 강화해나갈 것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핵없는 광주전남을 만들어 가기 위한 탈핵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해나갈 것이며, 이후 영광 한빛원전 반경 30km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광주·전남·북광역지사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영광 한빛원전의 정보공개 등을 통한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며, 핵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또 일상에서의 의료방사선 등의 인공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핵발전소 배수로 뉘시금지 캠페인 등 생활 속에서의 탈핵운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노후 핵발전소 폐쇄,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철회, 밀양송전탑 등 송전탑 공사 중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확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촉구 등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핵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4년 3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광주여성민우회/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광주전남원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한살림광주/빛고을생협/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주권행동/시민생활환경회의/에코바이크/평화행동지금/민중행동/광주전남녹색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YWCA/광주YMCA/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전남대 학생행진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숲길 푸른길을 훼손하는 도시철도2호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의 기본설계에 의하면,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 백운광장에서 조선대학교 앞까지 2.3km의 푸른길공원에서 77%에 해당되는 1.77km를 직접 훼손하는 내용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3월 21일, 사단법인 푸른길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요청한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은 지면에서 얇은 깊이(저심도)로 공사를 계획하면서 백운광장 지하차도(예정)와 남광주 고가차도를 피해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대남로의 아름드리 느티나무 가로수와 푸른길공원의 나무 및 산책로들을 들어내는 공사를 진행하고 이 구간에 4개의 승강장과 승강장 출입로를 푸른길에 설치한다고 한다.

이 구간에는 30년 된 느티나무 가로수들과 조성 후 10년이 된 푸른길의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어울려 자라고 있는 생태적 공간이다. 공사 중에 편리하게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땅 속 깊이 뿌리박고 사는 도시숲 나무들이 지금껏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곳이다. 다시 심는다고 하더라도 불과 30cm 깊어봐야 3m 아래에 철도 콘크리트 터널이 지나가는 곳에서 아름드리 도시숲길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사)푸른길은 이러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했던 2호선에 대한 계획은 A4 1쪽으로 만들어진 개략적인 노선도가 전부였으며, 도로 중앙을 따라 지하에 계획하는 것으로만 밝혀왔기 때문이다.

도로 중앙 지하에 경전철을 다니게 하는 저심도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도시철도2호선은 고가구조 경전철에 비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홍보할 뿐 구체적으로 푸른길과 같은 주요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과 자료제공 없이, 공사비와 편의성 위주로 비공개로 진행된 기본계획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백운광장까지 푸른길공원 2.3km 구간은 10년 전인 2003년~2005년 도시철도 폐선부지로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열망에 의해 푸른길로 바뀐 최초 구간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었던 푸른길공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어떤 나무들을 식재할지를 함께 의논한 공간이기도 하다. 푸른길의 나무 한그루 한그루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광주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헌수기금을 내어준 시민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돌이켜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우선시하겠다는 백운지하차도도 푸른길의 훼손을 막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백운고가 연장 재가설사업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백운고가 철거 방침을 이끌어내면서 결국 성립한 것이다.

공원과 도시숲을 우선하는 도시정책은 잘사는 도시로 가는 지표이다. 광주 푸른길공원은 광주의 자랑이자 전국에서 주목해온 도시재생과 도시숲길 조성의 사례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면서 공사 편의적으로 공원과 도시숲길을 무시하는 발상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과거로 되돌리는 시대역행적인 발상인 것이다.

푸른길을 들었다 놓았다 해도 되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토건적 사고에서 탈피하길 바라며, 이미 광주를 대표하는 푸른길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무시한 채 당장의 셈법만으로는 더 중요한 미래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철도폐선부지로부터 시민의 힘으로 푸른길이 만들어지고, 푸른길을 지키기 위해 백운고가 연장재가설사업 반대로 뜻을 모았던 과거를 반추해, 토목사업이 지역주민, 시민들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처럼, 행정편의, 정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효율성과 함께 그 문제점도 공개하고 대화를 통해 시민과 만들어가길 바란다.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광주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푸른길을 사라지게 하는 도시철도 2호선계획의 건설방식과 통과 위치의 수정을 요구한다.

2014년 3월 26일

(사) 푸른길 / 광주환경운동연합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 약사암 탐방로 확장계획을 재검토 하라!

- 생태경관 훼손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검토되어야.
- 시설을 키우지 않고 탐방객 안전과 무등산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증심교와 약사암 사이 의재길 1.2km 구간 탐방로 폭을 현재에서 1.8~2.5m 추가 확장할 계획으로 일련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탐방로로 지정된 의재길이 차로로도 이용되는데, 도로폭이 좁아 탐방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증심사천 상류 계곡쪽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탐방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현재의 무등산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가능한 원형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리방향에도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특히 해당 계곡 하류 구간은 정비사업으로 상당히 자연성을 잃은 모습이다. 상류에 까지 계곡을 따라 데크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생태환경 및 경관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후 유사한 공사가 연쇄적으로 진행될 우려 또한 안고 있다.

탐방객의 안전과 무등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통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약사암 및 공원관리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이 빈번한 날과 시간대 그리고 강우나 강설시에 탐방객이 안전할 길로 우회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이용자에게도 최대한 서행을 하는 등 안전에 주의 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지속가능한 무등산을 위한 방안 강구해야 한다.

확장 및 보강에 대한 구간과 시설을 최소화 하여, 무등산 생태환경과 문화재보호구역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탐방객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설을 키우는 것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탐방객 수가 늘고, 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도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등산 보전이다. 승용차 이용자를 확대 수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키우고, 경쟁적으로 탐방객 수가 많다는 것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의 효과를 득하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무등산을 위해 직접적인 이용 수요 조절이나 환경 부담을 최소화 하는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시민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다.

현재의 의재길 탐방로 확장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14. 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한전, 밀양시, 경찰청은 밀양 송전탑 공사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밀양시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주민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오늘, 2000여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물리력으로 주민들을 끌어내고 강제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고령의 주민들은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며 강제철거에 극렬히 저항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고리1호기 핵발전소 연장가동과 핵발전소 추가 계획에 따른 송전탑 건설은 타당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마을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대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행주체인 한전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설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철탑 예정부지에 농성장을 짓고 온몸으로 저항해 왔

다. 이런 상황에 밀양시가 오늘 급기야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송전탑 건설을 위한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이다.

오늘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물리력으로 주민들을 강제한 행정대집행 단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집행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

주민들은 돈보다 사람, 강행이 아닌 대화와 대안을 이야기 해왔다. 10년 넘게 산을 오르내리며 송전탑 건설을 막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정부와 한전, 밀양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4. 6. 1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 나타난 이상 징후,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빛이끼벌레 대량 번식

영산강 광주구간에 큰빛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이 대량 번식중이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 나타나는 이상징후이며, 4대강사업으로 강물을 막은 결과로 보여진다.

큰빛이끼벌레는 돌이나 바닥 등에 부착하여 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생물종이다. 저수지나 호수에서 발견되곤 하였다. 그런데 영산호가 아닌, 영산강 상류에서 대량 번식하고 있는 모습은 작년 가을부터 발견되었다. 이전 영산강에서는 볼수 없었던 기현상이고 4대강사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눈에 띄는 특정 생물종의 출현이라는 변화만이 아니라, 영산강의 전반적인 수생태계의 변화, 강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 판단된다.

실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생태 변화가 적지 않다. 당장 하천수질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빠져서, 하천수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양서류, 저서무척추 동물 등의 종이 감소하였다. 또한 서식환경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로는 저서무척추 동물을 비롯한 어류의 경우, 저수성 및 외래종이 급격히 늘고, 어육성 토종 생물종은 감소추세이다. 하천변 식물 또한 생태계교란종과 외래종이 증가하였다.

수질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조류(녹조)가 대량 번성하고 있고 악취도 심해졌다. BOD, SS, T-P 수치 증가, 즉 수질이 나빠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의 피해,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영산강을 다시 강으로 다시 복원해야 한다.

2014. 6. 26

광주환경운동연합

.....
4대강사업 책임 당사자인 수자원공사 사장 발언에 대한 성명

녹조, 큰빗이끼벌레 창궐은 4대강사업 때문이다!

오늘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최계운 사장이 영산강 현장을 찾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큰빗이끼벌레 출현이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 된 것과 달리 녹조, 큰빗이끼벌레를 현장에서 볼 수 없었고, 수질 또한 좋아졌다면 국민에게 제대로된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환경단체와 전문가, 언론의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수공 사장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해를 불러온 책임기관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업의 한 책임을 갖고 있는 수공이, 4대강사업비를 국민의 혈세로 다시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폐해 또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 수질악화, 농지침수, 큰빗이끼벌레 창궐, 생물종 감소, 생태계 교란종 급증 등 영산강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4대강사업을 가리키고 있다.

4대강사업이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 것들이다. 어제는 수공이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의 경우 4대강사업 이전에도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했기 때문에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그 근거로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2010년 이후 출현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로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은 궁색할 뿐이다. 오히려 4대강사업 준설과 보 건설을 위해 가물막이를 하는 등, 공사과정에서도 이전보다 정체구역이 형성되었음을 유추해 볼수 있다. 보가 완공되어 정수구역이 완전하게 형성된 이후 이런 정수생물이 급증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영산강 죽산보 준공 후, 2012년부터 나타난 농지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수공은 보 때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최근 조사용역 결과, 보로 인한 결과임이 드러났다. 또한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승촌보 구간에서 다시 큰빗이끼벌레가 번식하고 있다.

진짜 원인에 대해 눈감고,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태도는, 4대강사업의 폐약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엄청난 국민혈세로 벌인 사업이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수공과 정부는 현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한다.

2014. 7. 11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찬동인사는 전남도 부지사로 적합하지 않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내정을 철회하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오늘 정무부지사로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우기종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당시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으로, 단순한 찬성 차원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사라 할 수 있다.

다목적 녹색성장 실천 전략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당시의 입장이었다. 우 내정자는 4대강사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4대강사업 이후 지류 지원까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4대강사업은 환경파괴, 재정파탄형 망국사업이라며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 민간진영 주장만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총체적 부실,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 문화재 보호대책이나 합당한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추진한 인사를 전남도 부지사로 내정한 것은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낙연 도지사는 광주시와의 상생 발전안으로 영산강 재자연화를 제시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후유증과 문제를 인지한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다.

우 내정자는 향후 도정방향에 부합한 인물이 아니다.

우기종 전남 부지사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2014. 7. 23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낙연 전남지사는

타당성 없는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주장을 철회하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목포-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언론으로 통해 알려졌다.

이낙연 지사가 해저터널을 제안한 배경과 취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해저터널 토건사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을 남도권에 유인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이다. 저성장 등 경제침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과 계속 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서울 혹은 제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전남 등 남도권을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정당성 타당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가재정을 또다시 과탄널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해저터널 제안은 토건업만을 위한 주장일뿐 전남의 발전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바 있다. 그런 사업을 마치 타당성이 있고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양 언론을 통해 부추기는 양상이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은 손실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기에,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낙연 지사가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근거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관련 연구 보고서라고 한다. 보고서의 몇가지의 수치만 보더라도 이미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호남 제주간 해저고속철을 이용할 연인원수를 1,900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 인원수가 약 1,200만명임을 감안한다면, 예측이 적절하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 유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저터널이 해결해 줄 수 없다. 혹시 관광객 유치에 어

려움이 있었다면, 교통 인프라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해상과 하늘, 육상 교통을 계속 확충하였다. 오히려 우리 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활용하는 등 콘텐츠에 힘을 더 기울이는 것이 합당 할 것이다. 국가예산을 적절한 곳에 투자 할 방법을 찾는것이 부합한 일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제기 했다가 타당성이 없다는 정부 용역 결과가 밝혀져, 뒤 늦게 공약을 철회하기도 했다. 경솔했던 과오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여전히 지역발전 구상이 토건업을 통해 활성화 하겠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지역 정치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낙연 지사는 환경문제가 없는 점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환경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 하는가? 타당성과 정당성이 입증 안된 사업을 선불리 주장해서는 안될 일이다.

해저터널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2014년 8월 25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국토교통부는 대기오염 논란이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중단하라! 광주시 또한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하라!

국토교통부가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 을 개정 고시하고, 연간 1만대씩 경유 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가 엘피지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택시에도 유가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국토부가 사실상 대기오염 논란이 있는 경유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택시 1만대를 경유택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할당량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경유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와 시민의 건강권의 문제를 들어 국토부에 경유택시도입 반대외사를 이미 밝혔다. 국토부는 1만대중 가장 많은 2,782대를 서울시에 할당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경기와 인천을 제외한 타 지역 시도에 추가 할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기오염, 시민의 건강문제, 경제성 문제 등의 논란이 되는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자체에 전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유로-6 규제 경유차량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실험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유로-6 기준이 적용된 경유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LPG택시보다 최대 30배 많이 배출되고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도 연간 16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택시의 특성상 주행량이 많아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노후화 되는 만큼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늘게 된다.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가 있으나, 저속 구간이 많은 시내 주행 등을 비롯하여 주행량이 많은 택시 특성상 효율성에 논란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있는 만큼 경유택시에 대해서 검증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했다. 시민의 건강이 지역으로 차별될 수는 없다. 실제적인 환경성 평가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안될 일이며, 일방적으로 지자체에게 전가시켜서도 안된다. 국토부는 대기오염 논란이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중단하고, 광주시 또한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해야 한다.

2014. 12. 17

광주환경운동연합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중간보고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광주시는 오늘 오후 2시, 서구 화정동에 자리한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2호선 1단계인 차량기지~백운광장~광주역까지 17km의 노선과 정거장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2호선 1구간 기본설계는 2013년 1월 착수, 내년 2015년 5월 최종 완료될 계

획으로 있으나, 이번 중간보고회를 거친 이후 광주시는 2015년 1월 도시관리계획 입안, 2월 총 사업비 협의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어 마무리단계의 보고회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회는 저심도방식의 안전성, 시민들의 접근성, 푸른길공원 훼손, 하부 구조물과의 충돌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의 삶과 미래 광주의 도시구조를 결정하는 도시철도의 노선과 정거장 논의에서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참여 역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간보고회 자료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고회는 시민, 시의회,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된 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공무원들만이 참석하고 있어 보고회가 아닌 행정기관의 회의수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유일하게 중간보고회를 사전에 통보받은 민간단체인 (사)푸른길은 매우 중요한 보고 회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을 결정하였다.

(사)푸른길은 지난 4월, 백운광장~조선대학교 정문까지의 2.8km 푸른길을 잠식하는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푸른길과 도시철도2호선이 상생하기 위해 백운지하차도 하부의 노선설치, 남광주고가 좌우측으로 노선 분리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제시된 대안의 적용시, 공사비 증액(전체 공사비의 2%)을 이유로 푸른길공원을 잠식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의 열망에 따라 광주역~남광주역~광주대를 잇는 옛 폐선부지를 2003년부터 10여년에 걸쳐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다.

또한 광주시는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을 사람과 마을, 생태와 문화·예술을 잇는 도시재생의 축으로 명명하고 푸른길을 중심으로 원도심재생 및 활성화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심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2호선 앞에서는 푸른길공원의 생태적, 문화적, 도시재생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외면한 채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푸른길 잠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광주시는 주장하고 있다.

거대 토목공사 앞에서 푸른길에서 걷고, 휴식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이 광주시가 표방하는 더불어 사는 광주인가 되묻는다.

과거 토건주의의 명령이 21세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를 흔드는 현실에 우리는 심

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 도시철도2호선을 하기로 결정한 만큼, 도시철도가 앞으로 미래 100년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철저한 검증과 토론,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 시민의 소통과 참여가 배제된 중간보고회는 무효임을 주장한다.
- 푸른길공원의 훼손과 단절을 전제로 한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 광주시는 인권도시, 문화도시에 걸맞게 푸른길에서 시민들이 걷고, 휴식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푸른길공원의 생태, 문화, 예술, 도시재생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실행되어야 한다.

2014. 12. 24.

(사)푸른길, 광주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논평

- 4대강사업의 타당성, 정당성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비켜간 조사 결과 발표.
- 4대강사업으로 일부 문제 있긴 하나, 개선 효과가 있다는 식의 결론.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위 결과 발표인 셈.
- 그럼에도 치수와 수질 대책,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조사 내용. 향후 관리에도 애로 (영산강 BOD, Chl-a 농도 증가(수질악화), 보 상류 퇴적물에 T-P, T-N 유기물 증가. 남조류 증가 우려 등)
-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

○ 어제, 2013년 9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위원회 성격으로 출범함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발표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하자면, 4대강 실행 사업이 목적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타

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이다. 각 부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긴 하나, 추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면서, 총체적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비켜갔다. 오히려, 4대강사업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으므로,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조사위원을 비롯하여 조사 참여자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 요약은 일부문제 있음, 추후 보완 필요, 개선효과 있음으로 도출한 것이다.

○ 4대강사업은 30조 가량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4대강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대형 토목 사업이었다. 생태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준설과 보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수변을 공원화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농업용저수지 독높이기 사업, 배수문 증설, 홍수조절지 사업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부실한 타당성 검토 등 결정에서부터 완공까지 속도전으로 진행되었다.

○ 실효성은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 건강한 생태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과 걱정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가 총체적 부실, 건설사의 담합 문제 등이 지적된 만큼, 이에 더 나아간 조사와 명쾌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저버린 조사평가 발표이다.

결국은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 확인해준 셈이다.

○ 이런 한계를 갖는 발표였지만, 부분별 내용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이 타당하지 못했음 확인할 수 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몇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및 수자원 확보에 대한 실효성 부분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양상과 수자원 확보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막연한 물고름 키우기 식으로 홍수위를 낮추어 홍수 예방과 가뭄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홍수위가 기존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개선된 효과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낮아졌고, 이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 그러면서도, 보의 위치선정 기준 및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과거 최대가뭄 발생시 용수부족량 발생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사용가용수량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수량은 본류 인근 지역에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로 인한 홍수 피해 우려 가능성으로, 수문

오작동인한 수위 상승고가 높게 나타나 이의 영향이 클 것임으로 철저한 대비 수문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산강의 경우, 본류 구간에서의 물부족, 홍수피해는 없었고, 해남, 무안 등 본류 외 지역에서 가뭄에 취약하거나, 지천에서 홍수해 등이 있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가뭄과 홍수 대책에 맞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보의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지천에까지 미치는 배수 영향 등 홍수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보의 취약점도 간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수질 및 수환경 부분

- 영산강의 경우 총인처리시설 도입 등으로 하천에 유입 되는 인농도가 낮아졌음에도, 클로로필 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보와 준설이 BOD와 Chl-a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라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판단이다.

보로 인한 하천 수량이 늘었으나, 이로 희석효과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고, 수심이 증가와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층의 유기물, 조류, BOD 등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 완공 후 홍수기 후의 영산강 퇴적물의 T-P 평균 농도는 기존 준설 사례 평균 보다 4배 상승했다(1,764mg/kg→468mg/kg).

- 농업용저수지의 증고에 의한 하천유지유량 증가는 수질개선효과가 없는 요소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하여 인근 대수층 지하수의 장기적인 수질 변화가 예상된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 하천의 하안 형태 단순화와 모래톱과 하중도 제거는 하천환경을 상당히 동질화 혹은 단순화시켜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 예로 공사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물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 유수성 어종이거나 서식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으로, 준설과 보건설의 영향으로 볼수 있다.

기타 독높이기사업의 실효성 문제, 나주지역 등 4대강사업으로 문화재 방치 문제 및 훼손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

○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를 바로잡고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지금이라도 향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이런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4. 12. 24
평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선정, 2014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연합은 한 해 동안 주목받았던 광주 전남지역의 환경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모색하고자, 매해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한빛원전(영광핵발전소)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 수질 악화,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생태환경 적신호 ▶지리산케이블카 논란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복원 요구 본격화 ▶여수앞바다 GS칼텍스 원유부두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 급증.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 필요 ▶어업활동으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문제 심각 ▶석탄재 불법 매립으로 토양 오염 우려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계획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사고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한빛원전(영광핵발전소)

영광 핵발전소 사고와 비리문제, 관리 부실이 올해도 반복 되었다. 2월에는 2호기가 고장으로 멈추었고, 10월에는 3호기가 증기발생기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3호기의 경우, 2012년 원자로 헤드 관통관 균열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 정지 후 정비를 받았고 2013년 12월, 재가동 6개월 만에 변압기 고장으로 다시 중단된바 있다. 또한 한빛원전 한수원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내부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시켰고, 해당 업체 직원들이 발전소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결재를 하는 등 운영 관리에 치명적인 부실문제를 드러냈다. 한편,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광 발전소 안전성 확보와 피해 구제 노력이 확산되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영광 원전 안전성 확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광 발전소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 수질 악화,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생태환경 적신호

올해도 영산강 본류와 지천하류의 심각한 녹조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큰빗이끼벌레가 주목받았다. 호소환경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대형동물이 영산강을 비롯한 4대

강 전역에서 번식하였기 때문이다. 녹조 문제, 큰빗이끼벌레 출현은 영산강에 보가 건설되고 정체수역으로 변한 탓으로 보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BOD 수치가 높아지고 생물종 수도 줄어 영산강 수질과 생태환경이 더 악화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내용이 4대강사업의 실패를 재확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어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정조사 요구가 시민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리산케이블카 논란

환경성 문제로 불허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전남도 등 인접 3개 도와 4개 시군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상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환경부에 요구 압박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은 급기야 자율 조정을 통해 후보지를 정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지자체장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자연보전과 관광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객 유인을 통한 지역발전 효과도 불분명할뿐더러, 지리산 훼손이 더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복원 요구 본격화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정상 군부대 이전 등 정상 복원 여론이 확산되었다. 군부대 이전에는 국방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일부 진척이 있으나 국방부와 광주시가 입장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체 부지를 광주시가 확보(비용) 해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광주시는 특별회계로 국방부와 환경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민간 토론회 등을 통해 정상 복원의 당위성이 강조되었고, 방식의 입장차이도 좁혀가고 있다. 방송통신탑의 경우 무등산 장불재와 중봉 등지에서 있는 6개의 방송·통신사 송신소와 중계소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용역이 수행중이다. 그러나 예산 때문에 무등산 밖이 아닌 장불재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으로 좁혀지고 있어, 무등산 정상 그리고 아고산대 및 희소한 주빙하 지형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 급증.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 필요

올해 해남, 영암 등의 풍력발전 단지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사례가 빈번했다. 석탄석유화력, 핵 발전소를 대신할 대안에너지이자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주민들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설치 부지의 훼손 문제, 소음 등

피해를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직간접적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크다.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등의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는 법개정 등 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해이기도 하다. 분산형, 자립형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공론화와 정책 추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여수앞바다 GS칼텍스 원유부두,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GS칼텍스 원유부두와 유조선 우이산호가 충돌하여 원유와 납사를 포함한 1,025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1월 31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다.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 주민의 건강 피해도 컸다. 사고 초기에 실제 유출량보다 축소된 800리터라고 발표해 사실 은폐의혹까지 일었다. 방제 장비가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이었고, 사고 기업은 유출량과 원인을 숨기며 피해를 더욱 키웠다. 당시 해경과 여수시, 정부의 대응 부실이 혼신을 빚었다. 이 사고 여파로 당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임 되는 결과를 낳았다.

어업활동으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문제 심각

어업활동을 한 후 버려지는 폐자재 등 해양쓰레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낚시 폐통발, 어망, 새꼬막 양식 폐자재 등이 수년간 불법투기로 청정갯벌이 썩고 있으며 폐자재들이 그물과 함께 엉켜 선박 항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여자만의 경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네 곳이 접해있어 조류에 따라 해양쓰레기가 어느 곳이든 옮겨 갈 수 있어 지자체별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따라서 광역 도단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와 해양수산부의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석탄재 불법 매립으로 토양 오염 우려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를 전남 보성 농경지 골재채취장 복구 과정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석탄재는 비소와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석탄재를 성토할 때에는 흙을 절반이상 섞어야 함에도 규정을 무시하였고, 군청에 신고할 때는 지하 7m까지만 땅을 파서 석탄재를 묻겠다고 했지만 이를 어기고 20~30m까지 판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내 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시설까지 설치하였다. 더욱이 석탄재를 매립한곳은 광주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로 유입되는 보성강 옆 농경지여서 식수원 오염까지 우려된 상황이다. 2012년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재활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문제를 키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광주 운동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계획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거 광주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던 운동동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9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빌리지, 태양열목욕탕 등이 건설 된다. 과거 악취를 비롯하여 재산상 불이익 등을 받았던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도록 하고 있어, 주민 참여형 친환경에너지 확대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경제성,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라 올해 취임한 윤장현 시장이 인수위원회에 제안을 받아들여, TF팀을 구성하는 등 건설 찬반여부 논쟁이 크게 일었다. 결국은 12월 1일 윤 시장이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저심도 방법에 따른 안전문제, 경제성,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일정 또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해결책 모색 노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문제를 비롯하여 푸른길 공원 구간 훼손문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강구 등 도시철도 2호선이 풀어야 할 과제가 크다

2014. 12. 29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언론보도로 보는 우리 활동】
- 언론보도 발취

donga.com

[광주/전남] “지석강에 귀이빨대칭이-호사비오리 서식 확인”

멸종위기종 1급 귀이빨대칭이

2014-03-21 03:00:00 편집



천연기념물 448호



호사비오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영산강 지류인 지석강에 멸종위기종 1급인 귀이빨대칭이와 천연기념물 448호인 호사비오리가 서식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문화재청과 환경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조사와 보호 대책을 요청했다.

호사비오리는 세계적으로 1000여 마리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제 멸종위기종. 겨울철새로 남한강이나 남강에서 관찰됐고 5~6년 전부터 해마다 10~20여 마리가 지석강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멸종위기종인 귀이빨대칭이는 담수 조개류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지석강에 서식하는 것은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식용으로 채취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는 것은 지석강의 수질이나 생태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증거”라며 “지석강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해 하도 정비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예치와 청풍면 화학산(614m)에서 발원해 능주면을 지나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지석강은 길이가 53.5km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광주 도시철도 2호선으로 '푸른길' 77% 훼손"

환경단체 계획변경 요구...건설본부 "최소화 방안 찾을 것"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폐선부지를 활용해 만든 '푸른길'의 77%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푸른길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 숲길인 '푸른길'을 훼손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변경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푸른길이 최근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알려진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에 따르면, 백운광장에서 조선대까지 2.3km의 '푸른길'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1.77km가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은 백운광장 지하 차도와 남광주 고가차도를 피해 가기 위해 대남로의 느티나무 가로수와 푸른길공원의 나무, 산책로를 들어내고 4개의 승강장과 승강장 출입로가 설치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백운광장까지 푸른길공원 2.3km 구간은 도심철도 폐선부지로 10년 전 시민에 의해 '푸른길'로 바뀐 구간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구간은 30년 된 느티나무와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어울려 자라는 생태적 공간"이라며 "공사 편의를 위해 공원과 도시 숲길을 무시하는 발상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과거로 되돌리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 푸른길공원은 광주의 자랑이자 전국에서 주목해온 도시재생과 도시숲길 조성의 사례"라며 "푸른길과 도시철도 2호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중앙에 철도가 지나도록 설계를 하고 있으나 대남

로의 경우 푸른길과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다"며 "푸른길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기본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옛 기무대·국군병원 공원과 토론회

기사등록 일시 [2014-04-09]

【광주=뉴스is】 류형근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방치되고 있는 옛 기무부대와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대해 공원 추진에 나선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후 3시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홀에서 '옛 기무부대, 국군광주병원 공원화,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강은미 광주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고 조동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숲, 공원, 도시재생, 시민을 잇는 전략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하정호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의 하정호연구원이 '어린이청소년 꿈의 공원'을 제안 발표하고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지역 주민, 환경단체, 관련 공무원이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부지에 대해 공원을 주장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어린이청소년문화도시협의회가 제안해 이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기무부대와 국군광주병원이 이전을 한 뒤 두 곳에 대해 역사공원과 화정공원으로 결정됐지만 국방부 소유토지에 대한 매입 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지난 2월에서야 국방부와 광주시는 "각 부지 일부분 무상양여, 나머지는 광주시 매입" 조건으로 협약을 발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삼눈이 물고기’ 캠페인 ‘눈길’
‘핵 발전소 배수로 낚시 금지’ 홍보 취지로 마련
입체 종이접기 후 SNS서 공유…탈핵 운동 일환**

입력날짜 : 2014. 05.01.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삼눈이 물고기 캠페인’ 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핵발전소 배수로 낚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한 ‘무조건 안전하다’ 라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와 교육의 균형을 잡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때에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핵발전소 바로알기 캠페인이다.

또 저선량 방사능(선)도 인체에 영향을 미침을 알리고 온배수(열폐수) 등에 의한 바다생태계의 파괴를 알리고, 핵발전소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탈핵 캠페인이라고 덧붙였다.

삼눈이 물고기는 TV만화 ‘심슨 가족’ 에 나오는 핵발전소 주변 강에서 낚시로 잡힌 눈이 셋 달린 돌연변이 물고기로, 핵발전소의 영향에 의한 돌연변이의 상징이다.

이번캠페인은 시민들이 직접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gikfem.or.kr)에서 삼눈이 물고기 입체 종이접기를 다운받아 출력, 아이들과 함께 입체 종이접기를 한 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과 그림을 자신의 블로그·카페·SNS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방사능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신체에 영향을 준다’ 는 것이 학계의 결론” 이라며 “한빛(영광)핵발전소는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배수로 낚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핵발전소의 이미지 개선과 여론을 호도하기 꿈수로 배수로 낚시를 운영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핵발전소 배수로로는 핵발전소의 열을 식히고 나오는 뜨거운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수로로 그 물이 직접 핵물질에 노출되지는 않는다. 방사능 오염수는 아니다” 면서도 “월성과 고리핵발전소 인근 어류와 해조류 등에서 방사성 세슘(Cs-137)의 농도가 최근 5년

간 농도범위(38.6-151mBq)보다 최대 70배(7,080mBq/월성, 승어)까지 검출됐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고 당부했다.

이밖에 “핵발전소의 최우선 목표는 안전이어야 하며 원자로 정지사고, 위조-짜통부품 비리, 부실-불법정비에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한빛(영광)핵발전소는 배수로 낚시로 이미지 세탁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의 안전과 주민들의 안전 및 방호대책 등을 우선 마련하고 홍보해야 할 것” 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한다면 핵발전소 배수로 낚시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연합 “무등산 탐방로 확장 계획 재검토하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심사~약사암 탐방로 폭 확장 추진
“생태경관 훼손 및 문화재 영향…신중히 결정해야**

기사 게재일 : 2014-06-11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이하 공원사무소)가 중심사~약사사 탐방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탐방로 폭을 확장하려는 것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재검토를 촉구했다. 11일 환경연합에 따르면, 공원사무소는 무등산 중심교와 약사암 사이 의계길 1.2km 구간 탐방로 폭을 1.8~2.5m로 추가 확장할 계획으로 일련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공원사무소는 지난 5월 중심교~약사사 구간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원사무소 측은 “정비 대상 구간은 탐방객 이용이 많은 무등산국립공원의 대표적 저지대 탐방코스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통행 혼잡과 차량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중심사천 상류 계곡쪽으로 테크를 설치해 탐방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현재의 무등산 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가능한 원형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관리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사무소 측 계획은 문화재보호구역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면서 “이미 해당 계곡 하류 구간은 정비사업으로 상당히 자연성을 잃은 상태에서 상류에까지 계곡을 따라 테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재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유사한 공사가 연쇄적으로 진행될 우려 또한 안고 있다” 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통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며 “약사암 및 공원관리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차량이 빈번한 날과 시간대 그리고 강우나 강설시에 탐방객이 안전한 길로 우회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이용자에게도 최대한 서행을 하는 등 안전에 주의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연히 탐방객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시설을 키우는 것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의재길 탐방로 확장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현재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탐방객 수가 늘고, 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도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고려돼야 하는 것은 무등산 보전이다” 며 “지속가능한 무등산을 위해 직접적인 이용 수요 조절이나 환경 부담을 최소화 하는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시민 참여 햇빛발전소’ 로 에너지 자립 나서자”
빛고를 광주 에코도시로!

(5)2014년 기후보호포럼 지상중계

관공서·대학 옥상 등 설립부지 선정·임대료 선결 과제
조합원 모집·설립 목적·이익구조 선택 문제 해결해야
탈핵·태양광·그린캠퍼스 도입 등 중장기 계획 설정을

입력날짜 : 2014. 09.03.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소’ 를 주제로 에코도시 광주를 향한 2013년 제3회 기후보호포럼이 지난달 12일 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열렸다. 강병식 김동호 박재호 전진숙 최길성 광주를 에코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우리동네시민햇빛발전소’ 를 주제로 지난달 12일 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에서 불과 4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영광의 핵발전소를 걱정하며 탈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에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재 전력자립도가 1%도 되지 않는 광주시가 태양광발전의 모범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현황 및 향후

영산강서 발견된 외래종 큰빛이끼벌레 기사등록 일시 [2014-06-26]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4대강 사업이후 영산강에 큰빛이끼벌레 등 외래종 대형동물이 대량번식하고 있다"며 "영산강의 이상징후이다"고 주장했다. 2014.06.26. (사진=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계획 등 광주시, 대학, 기업,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포럼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註

◇포럼 참석자(가나다순)

-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소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동호 前 ㈜다스컨설팅 대표
- ▲박재호 광주시 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담당 ▲전진숙 광주시의회 의원
- ▲최길성 기후변화센터 사무처장



김병식 김동호 박재호 전진숙 최길성

▲박재호 광주시 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담당=우선 현재 글로벌 에너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일본과 같이 원전사고를 겪었던 독일의 경우에는 원전 프로그램을 재검토해 2022년까지 원전을 폐쇄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시 역시 에너지시장 불안정 심화, 온실가스 감축부담 본격화,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원전 위험성 대두 등과 같은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에서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 보급률 11%, 원전비중 29%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를 목표로 두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2018년까지 공동주택에 햇빛발전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심부지열·태양광 등 지역 최적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하수처리장 내 신재생 복합단지, 상수도 햇빛발전소 등 환경-에너지 복합시설 조성에 앞장서겠다.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소협동조합 사무국장=햇빛발전은 모든 지역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의 햇빛을 활용하고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낮에 전력을 생산, 전력 피크를 완화할 수 있기에 신재생에너지로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햇빛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야 하는 이유는 개인소유의 주택 없이도 태양광발전소를 가질 수 있고 수익은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부지 구성원의 조합참여로 관리·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시민출자의 풀뿌리 참여로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정책 참여와 절약 실천을 돕는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햇빛발전소를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점차 광역시에 도입, 오는 2017년까지 10개 마을에 각 50kW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연간 약 240가구의 전력량을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치다.

햇빛발전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설립 부지 선정이 선결 과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학교에 만들어진 최초의 햇빛발전소인 ‘삼각고’처럼 학교 옥상에 20kW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햇빛발전소를 운영할 때 RPS제도에 따른 판매 불확실 및 가격하락, 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의 어려움, 비싼 임대료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 그러나 소형발전소에 한해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부활시키고 지역의 관공서·학교를 부지로 선정해 유휴공간과 더불어 에너지 교육 현장으로 쓰면 된다. 또 재정확보에 따른 어려움은 신·재생에너지 법 개정을 통해 용량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지자체에서 기후변화 기금 등 저리 용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과 소규모 발전소에 대한 국가적인 금융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전진숙 광주시의회 의원=우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는 소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시민 다수가 태양광에너지 판을 보더라도 ‘아 저것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활,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할 것 같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해 다양한 매체들이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지 않나 생각한다.

또 햇빛발전소를 마을공동체·일자리 창출과 접목시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5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이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라고 하지만 이를 작은 용량이라도 많이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의 욕구에 반해 예산을 풍족하게 확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공간 문제가 가장 큰데 행정에서 공간선정·알선, 낮은 임대료 설정 등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 시행중인 일조량을 표시한 ‘햇빛지도’를 만들어 데이터 구축에 힘써야 한다. 광주에서의 첫 시도만큼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해 시민형 햇빛발전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최길성 기후변화센터 사무처장=현재 시민햇빛발전소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모으는가와 부지 선정이다. 또 30-50kW 소규모 햇빛발전소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것과 인증서를 통해 수익을 얻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전자는 성장세를 타고 있으나 후자는 하락 추세다. 소규모 발전소가 수익을 내려면 서울에서 도입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손해 보는 만큼 보상해주는 것이다. 광주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태양광발전소는 최소 20년 정도 운영해야만 12년이면 원금 회수, 8년은 이익을 내는 구조인데 하루 빨리 1호를 만들어 선순환구조로 이어가야 한다. 1호의 발전금액으로 2호·3호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 또 인허가 과정이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 관공서·학교 부지 선정 등 광주시와 협조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이와 함께 1호기 햇빛발전소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잘 세워야한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지, 공익형 목적으로 이익이 나왔을 때 선순환 구조로 이익을 나눌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호 前 ㈜다스컨설팅 대표=서울시에서는 학교에 발전소를 세우려고 노력한다. 학교의 옥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것이 전력수요관리를 하면 전력거래소에서 돈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적용해 그 이익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요새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전기가 필요한 구조로 TV, 컴퓨터, 프로젝터 등 필요한 전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악순환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그린캠퍼스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의 전력사용이 어마어마한데 이를 역이용해서 전력을 제한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추후에 이에 따른 대학 평가 점수를 다르게 매기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가 생겼으면 한다.



[동아시아기후포럼] 광주에서 한중일 전문가 토론회 동아시아기후포럼, '기후재앙시대, 동아시아 기후전략은?' 한중일(대만) 환경NGO, 전문가 등 시민 300여명의 참여

2014년 09월 05일 (금) 19:07:27 광주in simin6678@hanmail.net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한국 광주환경운동연합, 중국 환우과학기술센터, 일본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는 오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재앙시대, 동아시아 기후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제 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개최한다.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은 중국(대만 포함) 20개 단체 참가자 30명, 일본 7개 단체 참가자 10명, 한국 20개 단체 참가자 30명이 참가하여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6개의 주제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5 이후 한중일 각국의 기후정책(세션1), 저탄소동아시아를 위한 시민활동(세션2), 녹색도시,녹색차(세션3), 후쿠시마 이후 동아시아 핵에너지향방(특별세션), 총4개의 세션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행사의 개막식은 16일 오전 09시20분~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1홀에서 개막공연, 축하, 환영사 등으로 꾸며진다.

최열(환경재단 상임대표)의 '기후위기의 시대, 동아시아의 책임과 역할' 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펼쳐진다.

한편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한중일 NGO가 3국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정보교환을 위해 격년으로 개최해 왔다.

이후 2010년 한국의 광주에서 '제5회 동아시아환경시민회의' 를 개최하면서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한일중을 순회하면서 포럼을 개최해왔다.



【광주=뉴스시스】 배동민 기자 =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황대권 핵없는세상광주전남 상임대표와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수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등이 광주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좌담회를 갖고 있다. 2014.11.10

"한빛원전서 날린 방사능풍선 1시간만에 28km 날아가"

기사등록 일시 [2014-11-10]

【광주=뉴스시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앞에서 날린 방사능풍선이 1시간만에 28km를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은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광주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장학기 광주시 안전정책관, 이미옥 광주시의회 의원, 황대권 핵없는세상광주전남 상임대표,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수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난 10월20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앞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날린 방사능풍선의 수집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시간만에 한빛원전에서 28km 가량 떨어진 전북 부안군 보안면 신북리 부근에서 방사능풍선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사무국장은 "풍선을 날린 날,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1시간만에 28km나 날아갔다"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을 20~30km로 규정한 방사능방재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광주시 자체적으로 방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2차례 정도 더 방사능풍선날리기 행사 등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확보,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노컷뉴스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영광 한빛원전 등이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발표됐다.

2015-01-05 09:57 광주CBS 김형로 기자

광주·전남 환경연합은 지난 한 해 광주 전남 10대 환경 뉴스로 사고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영광 한빛원전과 4대 강 사업 결과 영산강 수질 악화 그리고 지리산 케이블카 논란을 꼽았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복원 요구 본격화와 여수 앞바다 GS칼텍스 원유부두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 급증도 10대 환경 뉴스로 뽑혔다.

이와 함께 어업활동으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 심각과 석탄재 불법 매립으로 토양 오염 우려, 광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계획 그리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이 10대 환경 뉴스로 선정됐다.

광주·전남 환경연합은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 필요 지난 한 해 동안 주목받았던 광주 전남 지역의 환경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모색하고자, 매해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전 문

【광주환경운동연합 정관】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광주환경공해연구회”는 89년 3월 17일 이 땅에서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공해, 그리고 핵을 추방하여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창립되었다. 또한 92년 2월 29일 “광주환경공해연구회”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마감하고 높아가는 시민들의 공해추방과 환경보전의 절실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구심체로서 “광주환경운동시민연합”을 창립하였다.

'93년 4월 29일 그 동안 환경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건설과 우리나라 민간환경운동의 전국조직 창립에 발맞춰 구조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파괴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제3기의 민간환경운동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2000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에서 명칭 변경)”을 창립하였다.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약칭 “광주환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FEM GwangJu”라 한다.

제 2조(목적)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모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광주와 이 세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실) 본 연합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문제의 대안정책 개발 및 제시
3. 환경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4.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

- 5. 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지원·지지
- 6. 국내의 환경관련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연대
- 7.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자격)

- 1.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 2. 회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격구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의무)

- 1. 회원은 본 연합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금액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2. 본 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 본 연합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 8조(상벌)

- 1. 본 연합의 발전과 환경운동에 큰 기여를 한 회원, 시민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2.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총회

제 9조(회의)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0조(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 2.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 3. 총회 소집시 의장은 총회에 상정할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 11조(성원)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위임을 통보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2조(의결) 총회 의결은 참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하며, 위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13조(임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제정 및 개정
-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 3. 공동의장 및 감사 선출
- 4. 고문 추대 및 지도위원 위촉
- 5. 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6.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제 4장 조직

제 14조(임원) 본 연합 임원은 공동의장과 감사,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① 공동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체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회원가 입 후 1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 ② 감사는 2인으로 하고 본 연합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조(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6조(자문회의)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본 연합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① 자문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공동의장, 환경교육원장, 부설연구소 이사장 및 소장과 상임의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7조(고문) 본 연합은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상임고문을 둔다.

제 18조(지도위원)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지도할 수 있는 각계 지도급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둔다.

제 19조(후원회) 본 연합은 본 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조(환경상담실) 환경문제와 공해피해를 상담하고 환경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환경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1조(자료정보실) 환경관련 자료의 보급과 정보화를 위해 자료정보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조(환경교육원)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환경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3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조(상설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사업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조(특별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1. 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2. 지역조직 및 회원모임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사무처)

1. 본 연합은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제 5장 재정

제 28조(재정) 본 연합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재정위원회의 사업수익금, 후원회의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9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0조(예산 및 결산) 사무처장은 사업 및 예결산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보칙

제31조(정치활동 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개정) 정관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20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3조(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규정 및 준칙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1993년 4월 29일 제정

1996년 2월 8일 1차 개정

1997년 1월 21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6일 3차 개정

2000년 1월 21일 4차 개정

2001년 12월 27일 5차 개정

2004년 1월 13일 6차 개정

2007년 1월 25일 7차 개정

2009년 1월 20일 8차 개정

2011년 1월 20일 9차 개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생활수칙】

1. 자연을 사랑한다
2. 검소하게 생활한다
3. 1회용품을 안쓴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물을 아껴쓴다
6.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한다
7. 쓰레기를 줄인다
8. 에너지를 절약한다
9. 남김없이 먹는다
10. 나부터 실천한다